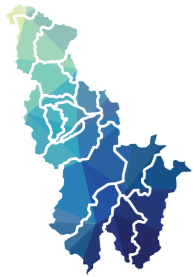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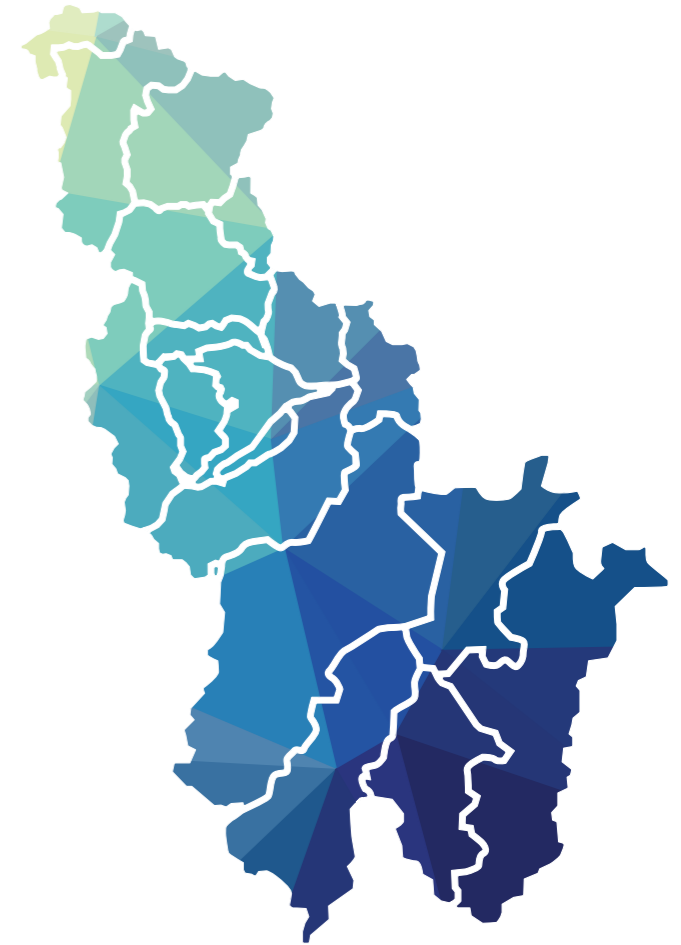
2020 그림으로 읽는  
대전세종 인포그래픽스

# DAEJEON·SEJONG INFOGRAPHIC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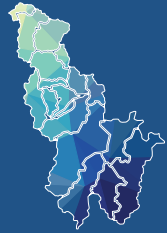
2020 그림으로 읽는  
대전세종 인포그래픽스

# DAEJEON·SEJONG INFOGRAPHICS 2020



2020 그림으로 읽는  
대전세종 인포그래픽스

# DAEJEON SEJONG INFOGRAPHICS 2020



## CONTENTS

①	대전을 찾은 관광객의 방문 특성은?	06
②	여성의 근로빈곤(working poor) 현황과 정책방안 대전시 20대 1인가구	11
③	대전시 및 세종시의 인구이동	14
④	치매노인 현황과 시사점	17
⑤	대전지역 예술인의 실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2
⑥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27
⑦	초등돌봄 실태는?	31
⑧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급증 차량 증차 및 서비스 개선 필요	38
⑨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	42
⑩	빈집분포 특성 및 시사점	46
⑪	대중교통 소외지역, 공공형 택시는 어때?	51
⑫	멸종위기어류 분포와 하천 복원방안	53
⑬	자영업자의 의료서비스 실태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체(1-4인) 종사자, 임시직·일용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58
⑭	‘온통대전’ 얼마나 통했을까?	62

대전세종인포그래픽스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사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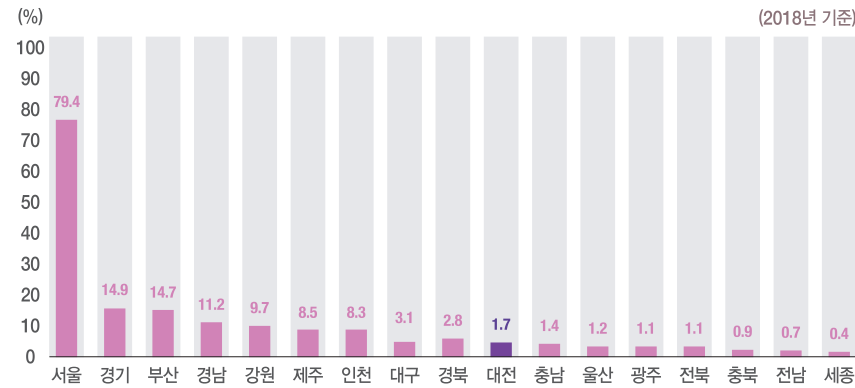
# 1 대전을 찾은 관광객의 방문 특성은?

## 개요

- 2018년 조사 기준 대전을 찾은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의 방문율은 전국 대비 낮은 수치이지만, 몇 가지 주목할만한 특성들이 있어 목표시장 맞춤 전략 수립에 참고가 될 것임
- 대전을 찾은 관광객의 방문 특성을 찾기 위해 활용한 조사자료는 다음과 같음
  -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한국을 방문한 후 출국하는 외국 국적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조사로, 1974년 조사가 처음 시작된 이래로 매년 진행되고 있음. 본 자료에서는 전체 응답자와 대전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비교하도록 작성됨
  - 국민여행조사: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국내, 해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조사로, 1976년 조사가 처음 시작된 이래로 매년 진행되고 있음
- 제시된 숫자는 소수점 반올림에 따라 총합이 100.0% 미만(예: 99.9%)이거나 초과(예: 100.1%)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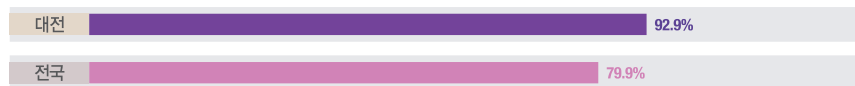
## 01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율

• 대전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은 1.7%로 전국 10위 수준 (충청권 중 가장 높은 수치)  
- 17개 시도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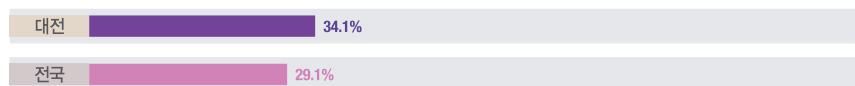


## 02 외국인 관광객의 대전 방문 특성

- 개별여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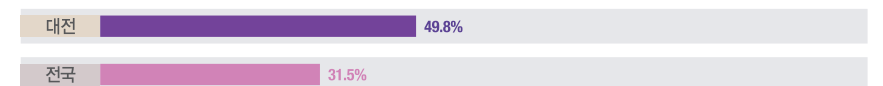
- 고정 외국인 관광객(4회 이상 방문) 비율



- 체재 기간 → 비교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성향



- 동반자 여부(단독여행 비율)



- 주 방문 목적(대전/전국 평균) :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전문활동(18.1%/4.6%) 및 교육(11.7%/3.0%) 비중

- 주 참여 활동 : 절대적으로 높은 업무수행의 비중(대전 43.3%/전국 평균 17.6%)

- ▶ 종합 : 대전은 전문활동(비즈니스, MICE 등) 및 교육 관광에 특화된 도시
- ▶ 시사점 : 1인 블레저<sup>1)</sup> 목적의 특화 가능성이 높은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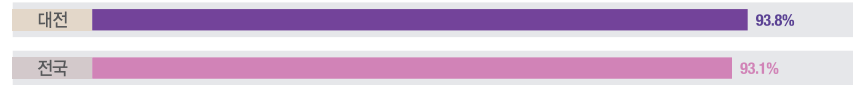
● 1) 비즈니스(Business)와 레저(Leisure)의 합성어인 블레저(Bleisure)는 과거의 비즈니스 출장과 다르게 일정 계획 시 비즈니스와 레저를 적절히 조화시킨 형태의 여행을 의미함(대전광역시·대전세종연구원, 2020)

•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 관련 비교 (전체 응답자 vs 대전 방문 응답자) (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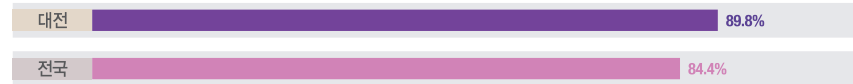
설문항목	응답항목	전체	대전	비교	설문항목	응답항목	전체	대전	비교
여행형태 (%)	개별여행	79.9	92.9	↑	주요 방문 목적 (%)	여가/위락/휴식	78.4	46.2	↓
	단체여행	12.4	5.5	↓		사업/전문활동	18.1	40.6	↑
	Air-tel Tour	7.7	1.6	↓		교육	3.0	11.7	↑
최근 3년 간 방문 횟수 (%)	1회	42.2	38.8	↓	주요 참여 활동 (중복 응답 /%)	종교 및 순례	0.4	1.5	↑
	2회	18.1	18.1	-		기타	0.1	0.0	↓
	3회	10.6	8.9	↓		쇼핑	92.5	80.4	↓
체재 기간(일)	≥4회	29.1	34.1	↑	자연경관 감상	54.4	54.3	↓	
	3~4일	7.2	12.6	↑	식도락 관광	74.3	46.1	↓	
	1~2일	7.2	12.6	↑	업무 수행	17.6	43.3	↑	
동반자 현황 (%)	혼자 왔다	31.5	49.8	↑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42.6	43.1	↑	
	동반자가 있다	68.5	50.2	↓					

# 1 대전을 찾은 관광객의 방문 특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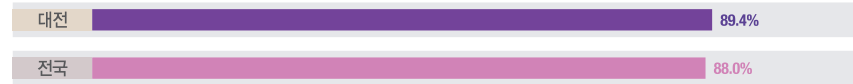
- 전반적 만족도 : 대전은 93.8%로 전국 평균(93.1%)과 유사  
→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 : 길 찾기, 관광안내서비스, 관광지 매력도, 언어소통 등



- 향후 재방문 의향 : 대전 89.8% / 전국 평균 84.4%



- 타인 추천 의향 : 대전 89.4% / 전국 평균 88.0%



-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 및 행동의향 관련 비교 (전체 응답자 vs. 대전 방문 응답자) (2018년 기준)

설문항목	응답항목	평균	대전	비교	응답항목	평균	대전	비교
한국 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 비율 (%)	전반적 만족도	93.1	93.8	↑	관광안내서비스	81.7	76.5	↓
	대중교통	87.0	90.1	↑	관광지 매력도	85.9	83.7	↓
	길 찾기	76.0	71.4	↓	언어소통	60.5	53.5	↓
	숙박	86.9	87.0	↑	여행경비	73.7	73.5	↓
	음식/미식 탐방	84.9	84.7	↓	치안(안전성)	91.3	91.9	↑
	쇼핑	89.8	89.3	↓	모바일/인터넷 이용편의	87.9	88.7	↑
향후 3년 내 재방문 의향(%)			84.4	89.8	↑			
타인 추천 의향(%)			88.0	89.4	↑			

# 03 내국인 관광객의 대전 방문율

- 내국인 관광객의 대전 방문율(%)

- 관광여행 목적 대전 방문 내국인 비율은 1.6% 수준
- 반면 기타여행 목적 대전 방문 내국인 비율은 7.5%로 전국 6위에 해당 (2018년 기준)

관광여행 <sup>2)</sup>						기타여행 <sup>3)</sup>					
전체		숙박여행		당일여행		전체		숙박여행		당일여행	
방문율	순위	방문율	순위	방문율	순위	방문율	순위	방문율	순위	방문율	순위
1.6	13	1.0	13	2.2	12	7.5	6	7.2	8	7.6	5

• 2) 관광여행이란 2018 국민여행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에서 여행의 주된 목적을 '관광·휴양'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의미함. 단, 여행 방문지 활동 중 '관광·휴양 활동'이 병행된 경우는 관광여행으로 분류함  
• 3) 기타여행이란 2018 국민여행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에서 여행의 주된 목적을 '출장·업무', '단순 귀성이나 단순 친구·친지 방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의미함

# 04 내국인 관광객의 대전 방문 특성

- 전반적 만족도 : 대전은 79.1점, 17개 시도 중 5위
- 타인 추천 의향 : 대전 75.3점, 17개 시도 중 9위  
→ 타인 추천 의향 중 숙박여행은 79.0점으로 상위권인 반면, 당일여행은 73.2점으로 하위권인 것에 주목
- 재방문 의향 : 대전 74.5점, 17개 시도 중 13위로 하위권  
→ 내국인 관광객에게 대전은 만족스럽고, 타인에게 추천하는 관광목적지이지만, 재방문할 정도로 매력적인 곳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

- 내국인 관광객의 대전 방문(관광여행 목적)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행동의향 (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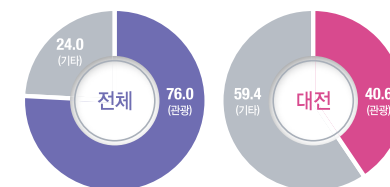
전반적 만족도		재방문 의향		타인 추천 의향	
점수(점)	순위	점수(점)	순위	점수(점)	순위
79.1	5	74.5	13	75.3	9

숙박여행		당일여행		숙박여행		당일여행		숙박여행		당일여행	
점수(점)	순위	점수(점)	순위	점수(점)	순위	점수(점)	순위	점수(점)	순위	점수(점)	순위
80.5	3	78.3	8	73.7	16	75.0	10	79.0	3	73.2	14

- (관광여행) 여행횟수, 여행일수, 여행지출액 모두 전체 총량에 비해 대전 총량은 현저히 적음  
→ 주목할 사항은 대전의 경우 숙박에 비해 당일 방문의 비중이 전체 총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기타여행) 여행횟수, 여행일수, 여행지출액 모두 전체 총량에 비해 대전 총량이 현저히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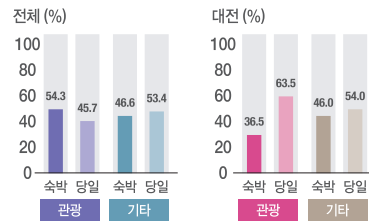
- 내국인 관광객의 대전 방문에 대한 총량 비교 (2018년 기준)

- 여행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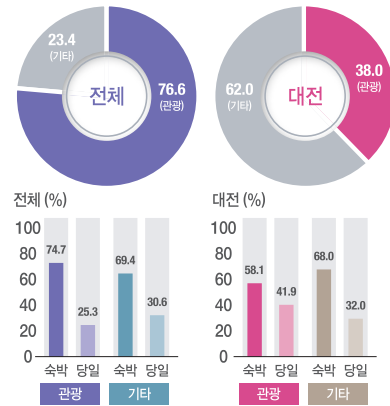
여행횟수 (단위: 천회)	구분	계	
		관광여행	기타여행
대전	전체	76.0	24.0
	대전	40.6	59.4

# 1 대전을 찾은 관광객의 방문 특성은?



구분		숙박	당일
여행횟수 (단위: 천회)	전체	관광여행	54.3
		기타여행	45.7
	대전	관광여행	36.5
		기타여행	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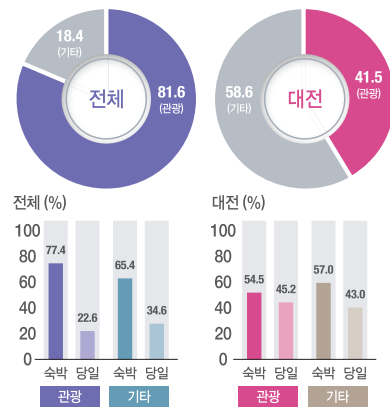
## - 여행일수



구분		계	
여행일수 (단위: 천일)	전체	관광여행	76.6
		기타여행	23.4
	대전	관광여행	38.0
		기타여행	62.0

구분		숙박	당일
여행일수 (단위: 천일)	전체	관광여행	74.7
		기타여행	25.3
	대전	관광여행	58.1
		기타여행	41.9

## - 여행지출액



구분		계	
여행지출액 (단위: 십억원)	전체	관광여행	81.6
		기타여행	18.4
	대전	관광여행	41.5
		기타여행	58.6

구분		숙박	당일
여행지출액 (단위: 십억원)	전체	관광여행	77.4
		기타여행	22.6
	대전	관광여행	54.5
		기타여행	45.2

▶ 종합 : 내국인 대상 관광여행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반면, 기타여행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  
▶ 시사점 : 당일 중심 관광경쟁력 강화 및 블레저 중심 관광 콘텐츠의 특화 노력 필요

# 2 여성의 근로빈곤(working poor) 현황과 정책방안

대전시 20대 1인가구

## 근로빈곤(working poor)이란?

사전적 의미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함. '빈곤'의 기준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20대 대전 1인 가구 여성의 관점을 기준으로 함

- 조사기간 : 2019.07.05.~2019.08.05.
- 조사대상 : 대전지역 20대 1인 가구 여성 11명
- 조사방법 : 눈덩이표집(스노우볼 샘플링) 방식으로 일대일 심층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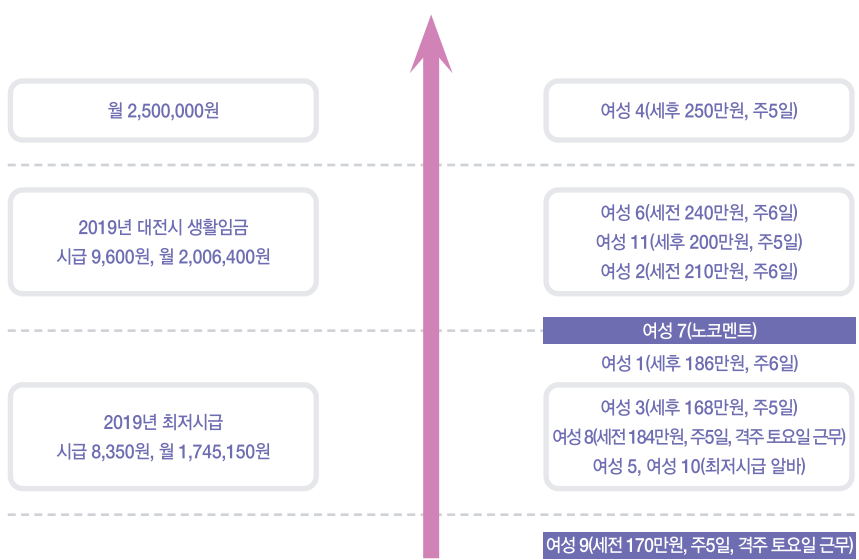
## 01 조사대상 개요

- 학력 : 전문대 포함 학사 6명, 석사 2명, 대학 중퇴 1명, 대학원 중퇴 1명, 대학 졸업유예 1명
- 고용형태 : 정규직 4명, 비정규직 7명
- 부모의 계층 : 2명-중, 9명-하
- 부채현황
  - 학자금 : 1인당 약 1천 3백7십7만원의 대출
- 불안정 노동 :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 정규직 4명 vs 비정규 7명
  - 공공기관 근무자 2명 제외한 9명 근로계약서 없음
  - 4대보험 미적용자 4명
  - 연차사용 가능 4명
  - 초과근무수당 대부분 없음

연구참여자	여성 1	여성 2	여성 3	여성 4	여성 5	여성 6	여성 7	여성 8	여성 9	여성 10	여성 11
나이	28	28	28	24	27	29	27	24	24	26	28
학력	석사	졸업유예	학사	학사	대학중퇴	석사중퇴	학사	학사	전문학사	학사	석사
직업	사무직	강사	사무직	사무직	서빙	강사	기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서빙	연구원
정규/비정규	비정규	비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비정규	정규	정규	정규	비정규	비정규
학자금대출	3천만원	x	2천만원	4백5십만원	2천만원	3천5백만원	x	1천만원	x	1천5백만원	1천7백만원
부모의 계층	하	하	하	하	하	하	중	하	하	중	하
주거대출	4천만원	-	-	-	3천5백만원	-	-	-	-	-	-
현 직장은?	3번째	4번째	5번째	1번째	4번째	6번째	1번째	1번째	1번째	3번째	1번째
현 직장 근무기간	8개월	2년	4개월	5개월	1년	1년4개월	2년 10개월	5개월	5개월	2개월	3년
근로계약서	x	x	x	o	x	x	x	x	x	x	o
4대 보험	o	x	o	o	x	x	o	o	o	x	o
연차 사용	협의	x	협의	o	x	x	o	o	o	x	협의
초과 근무	o	o	o	o	x	o	o	o	o	x	o
급여	세전196/주6	세전210/주6	세후168/주5	세후250/주5	최저시급	세전240/주6	노코멘트	세전184/주5(토 격주)	세전170/주5(토 격주)	최저시급	세후200/주5

## ② 여성의 근로빈곤(working poor) 현황과 정책방안 대전시 20대 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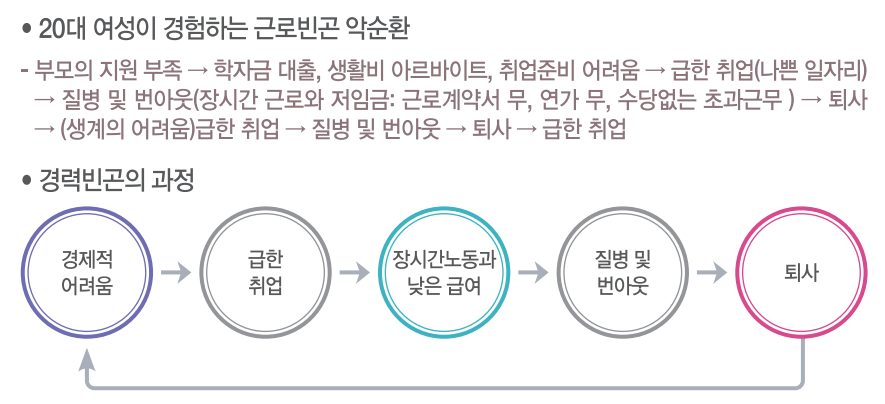
### 02 20대 여성 노동의 특성



#### •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잦은 이직

여성 1	대학교 조교 2016.2 ~ 2018.2 110만원 주5일(9-6)	연구원 조사원 2018.3 ~ 2018.5 170만원 주5일(9-6)	학원 사무원 2018.10 ~ 현재 196만원 주6일(13-21)
여성 2	아르바이트 2016.2~2017.5 급여, 근로시간 미상 과외, 카페, 식당, 백화점, 키즈카페, 육아박람회 등	학원강사 2017. 6 ~ 현재 180~210만원 주5일 (14-21) + 초과근무 주말근무(고등학생)	
여성 3	아르바이트 2014.2~2015.2 일일 알바 및 취업준비	공공기관 단기알바 2015. 4개월 170만원 주5일(9-6) 취업준비	연구원 사무원 2016.11 ~ 2017.12 174만원 주5일(9-6)
여성 5	대학시절 기간, 급여, 근로시간 미상 볼링장, 치킨, 편의점, 베이비페어판매, 공장, 공연기획사, 화장품판매, 온라인 교육 판매	중소기업 2018.5 ~ 2019.5 160만원 주5일(9-6) 일상적근근 및 주말근무	알바와 준비 2019.6 ~ 현재 롯데리아 (21h/1주) 볼링장 (15h/1주) 창업준비
여성 6	영어회화 강사 2016.2~2017.2 90~120만원 주5일(5-6h/1d)	번역회사 2017. 6개월 180만원 주5일(9-6)	프리랜서 2017. 2개월 100만원 카페알바 겸업
		리서치회사 2017. 3개월 130만원 주5일(9-6)	사무관리 2018. 2개월 150만원 주5일(9-6)
			학원강사 2018.4~현재 240만원 주6일(12-22) 초과근무

### 03 빈곤의 다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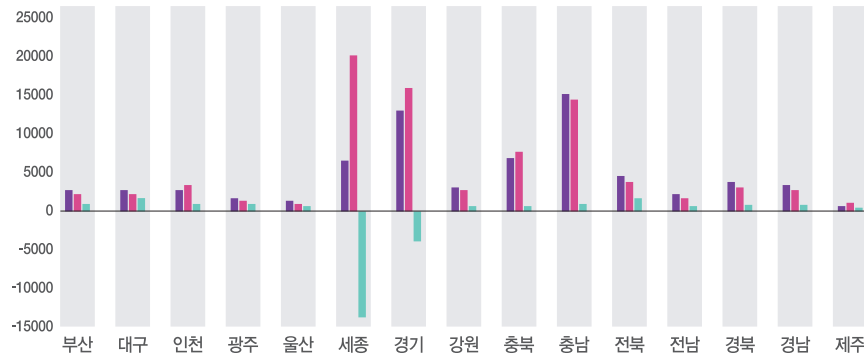
### 04 시사점

<b>20대 경력단절 지원</b> 경력지원 - 20대의 경력단절 현상을 완화할 '20대 청년형 직업탐색 시스템' 마련 - 적성과 진로를 고민할 '대전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개발 - 스펙과 자격을 갖춘 '공정한 청년인턴' 기회 노동권 지원 - 취업 후 모니터링 서비스 - 기업의 책임 강화	<b>기초생활 지원</b> 청년 마음건강 증진사업 - 대전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 청년여성친화병원 지정 청년식당 - 지역 내 공공기관 식당 개발 - 집밥 바우처 사업 - 소셜 다잉 및 공유부엌 확산 전세대출 지원 학자금 대출지원	<b>대전형 워라밸 사업 개발</b> 대전시 생활임금 확산 - 월급여와 대전시 생활임금 차이를 지역화폐로 연계 - 청년 직접 지원 대전형 빈곤기준 수립 - 청년 빈곤에 대한 새로운 기준 형성 및 지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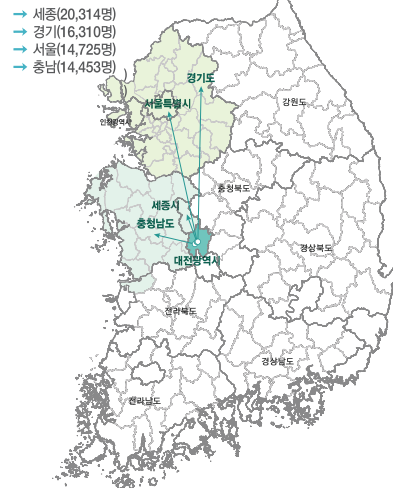
### 3 대전시 및 세종시의 인구이동

#### 01 대전시의 지역 간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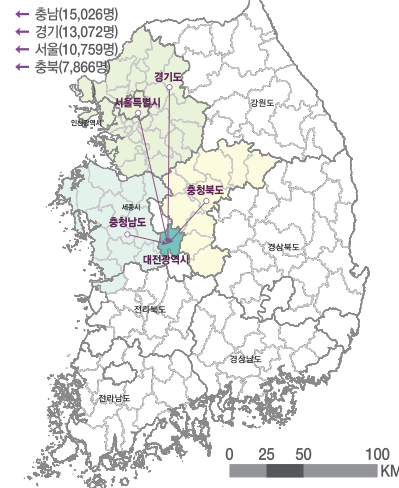
- 지난 2019년 전국 총전입·전출자수는 7,104,398명으로 집계
- 대전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된 지역은 세종시로 20,314명이 전출  
- 다음으로 경기(16,310명), 서울(14,725명), 충남(14,453명) 순으로 유출됨
- 대전시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된 지역은 충남으로 15,026명이 전입  
- 다음으로 경기(13,072명), 서울(10,759명), 충북(7,866명) 순으로 유입됨
- 2019년 말 기준 대전시의 총전출자수는 228,766명, 총전입자수는 212,424명으로 순이동자수는 -16,342명으로 집계됨
- 대전시 전입·전출 현황



2019 대전시 전출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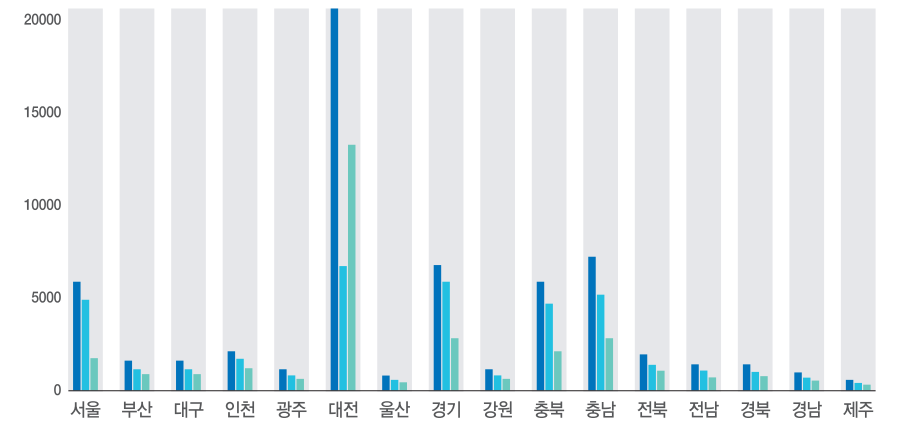


2019 대전시 전입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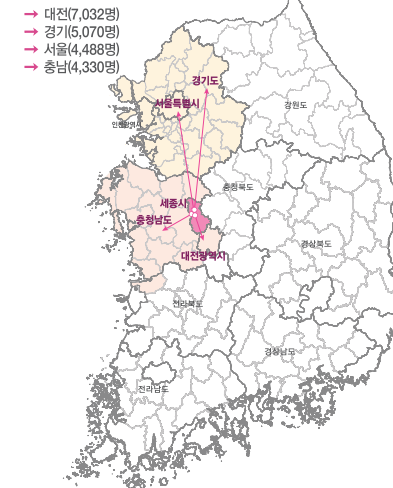


#### 02 세종시의 지역 간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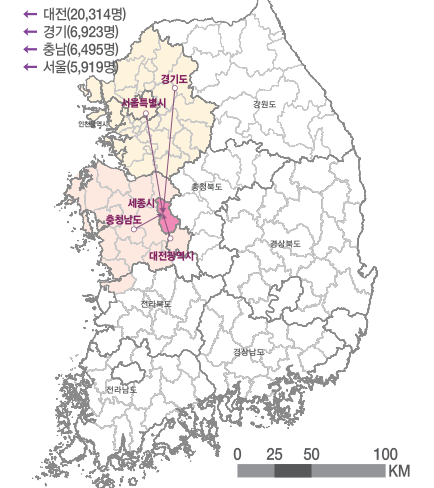
- 세종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출된 지역은 대전시로 7,032명이 전출  
- 다음으로 경기(5,070명), 서울(4,488명), 충남(4,330명) 순으로 유출됨
- 세종시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된 지역은 대전시로 20,314명이 전입  
- 다음으로 경기(6,923명), 충남(6,495명), 서울(5,919명) 순으로 유입됨
- 2019년 말 기준 세종시의 총전출자수는 58,674명, 총전입자수는 82,398명으로 순이동자수는 23,724명으로 집계됨



2019 세종시 전출 인구



2019 세종시 전입 인구





### 3 대전시 및 세종시의 인구이동

#### 03 대전시의 지역 내 이동

• 2019년 대전시 5개 구별 총전출, 전입자 수 다빈도 지역

순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출자수	전입자수	전출자수	전입자수	전출자수	전입자수	전출자수	전입자수	전출자수	전입자수
1	가양2동 (1,089명)	산내동 (822명)	은행선화동 (722명)	문창동 (1,609명)	둔산2동 (1,028명)	둔산1동 (522명)	온천2 (1,216명)	관평동 (1,983명)	중리동 (814명)	비래동 (2,917명)
2	효동 (1,055명)	삼성동 (758명)	대흥동 (613명)	대사동 (1,072명)	관저2동 (748명)	둔산2동 (423명)	신성동 (1,200명)	원신흥동 (1,535명)	송촌동 (728명)	석봉동 (2,209명)
3	자양동 (998명)	자양동 (710명)	석교동 (560명)	부사동 (964명)	탄방동 (742명)	만년동 (388명)	온천1동 (995명)	구죽동 (504명)	비래동 (727명)	신탄진동 (1,377명)
4	용전동 (990명)	용운동 (614명)	문화1동 (494명)	대흥동 (789명)	가수원동 (649명)	기성동 (312명)	원신흥동 (885명)	진잠동 (458명)	오정동 (580명)	중리동 (1,277명)
5	산내동 (912명)	용전동 (606명)	산성동 (449명)	중촌동 (773명)	갈마2동 (614명)	관저1동 (293명)	전민동 (860명)	신성동 (337명)	법2동 (298명)	회덕동 (1,181명)

• 2019년 대전시 5개 구별 순유입자수 기준 인구 증감 지역

순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1	대청동 (298명)	가양2동 (885명)	문창동 (1,425명)	문화1동 (380명)	기성동 (273명)	관저2동 (726명)	관평동 (1,356명)	온천2동 (1,185명)	비래동 (2,190명)	법2동 (162명)
2	삼성동 (146명)	효동 (830명)	대사동 (919명)	태평2동 (378명)	관저1동 (48명)	탄방동 (648명)	원신흥동 (650명)	온천1동 (953명)	석봉동 (1,999명)	-
3	판암2동 (44명)	가양1동 (554명)	부사동 (695명)	산성동 (364명)	-	둔산2동 (605명)	구죽동 (76명)	신성동 (863명)	신탄진동 (1,206명)	-
4	-	대동 (502명)	중촌동 (439명)	은행선화동 (270명)	-	가수원동 (515명)	-	전민동 (568명)	목상동 (929명)	-
5	-	신인동 (488명)	대흥동 (176명)	오류동 (186명)	-	갈마2동 (510명)	-	노은3동 (540명)	법1동 (928명)	-

#### 04 세종시의 지역 내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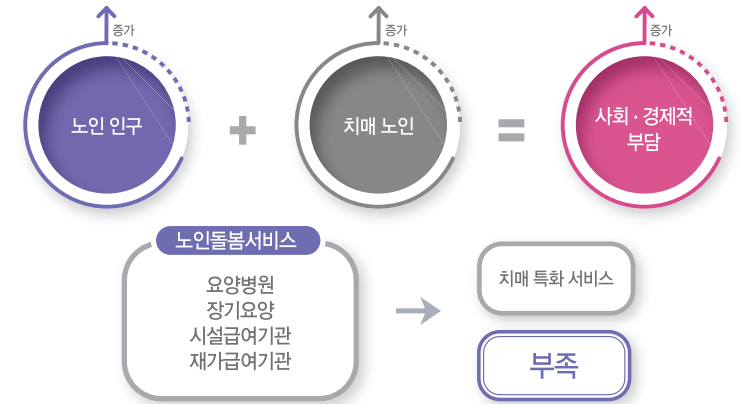
• 2019년 대전시 5개 구별 총전출, 전입자 수 다빈도 지역

순위	전출자수	전입자수	순이동(+)	순이동(-)
1	도담동 (3,931명)	소담동 (6,366명)	소담동 (4,473명)	도담동 (2,354명)
2	새롬동 (3,891명)	새롬동 (5,421명)	새롬동 (1,530명)	중촌동 (1,913명)
3	중촌동 (3,565명)	고운동 (3,869명)	고운동 (1,089명)	아름동 (1,385명)
4	고운동 (2,780명)	보람동 (2,506명)	대평동 (930명)	조치원읍 (1,161명)
5	아름동 (2,510명)	중촌동 (1,652명)	보람동 (737명)	한솔동 (836명)

### 4 치매노인 현황과 시사점

#### 01 치매노인과 돌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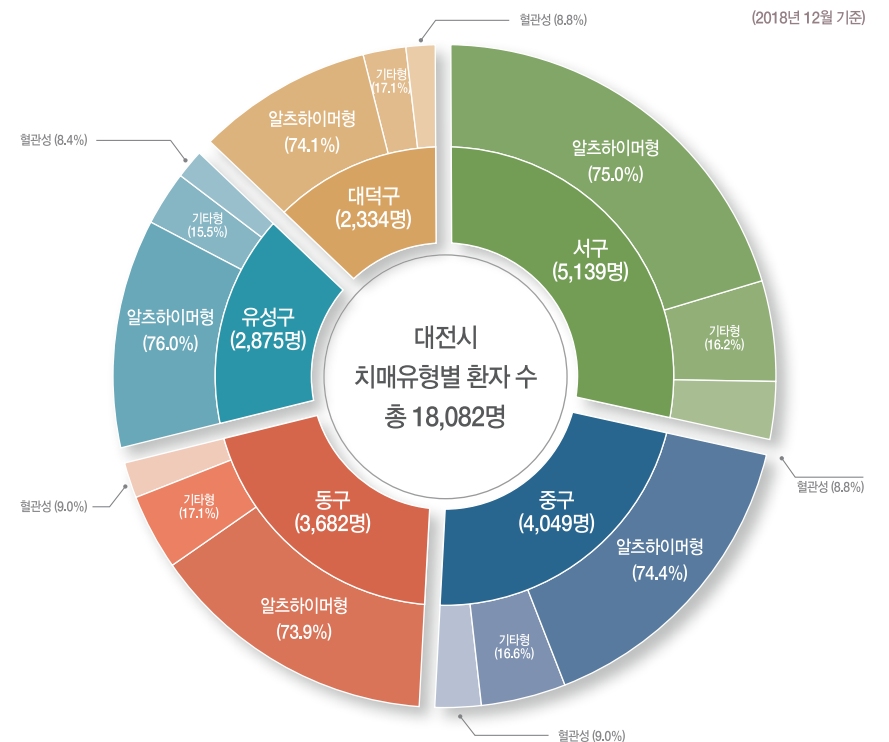
• 현재 우리 사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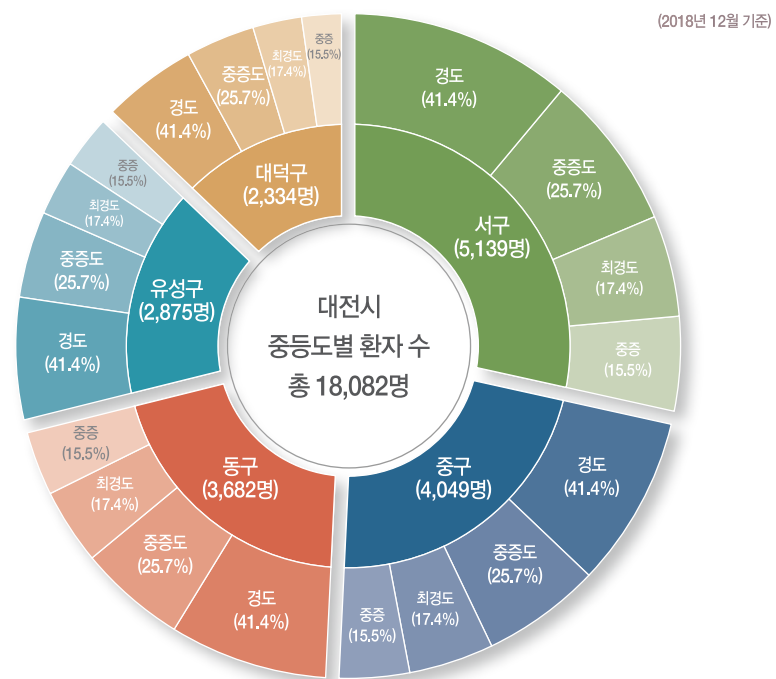
#### 02 치매노인 현황

• 대전시 전체 추정 치매환자 수는 18,08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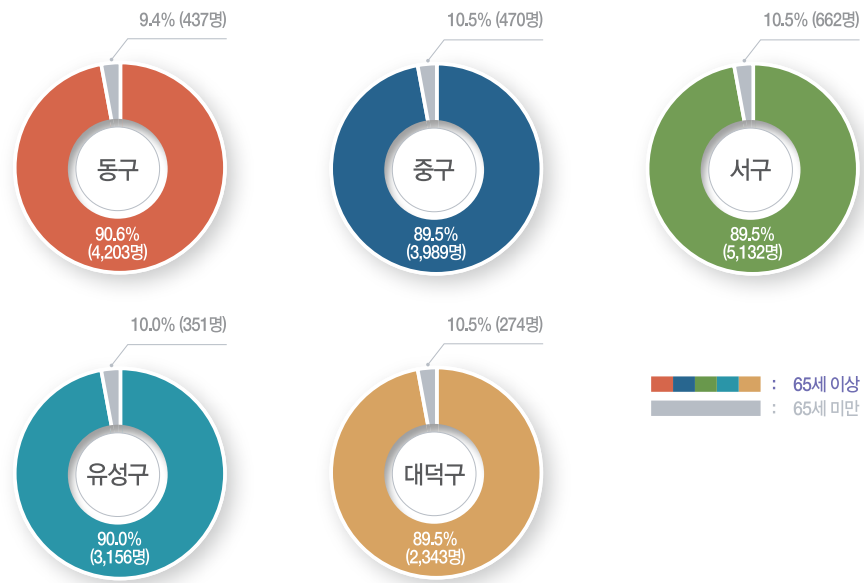
- 치매환자 수 : 서구 5,139명(28.4%), 중구 4,049명(22.4%), 동구 3,682명(20.4%), 유성구 2,875명(15.9%), 대덕구 2,334명(12.9%)
- 유형별 환자 수 : 알츠하이머 13,502명(74.7%), 혈관성 1,598명(8.8%), 기타 2,982명 (16.5%)
- 중증도별 환자 수 : 경도 7,486명(41.4%), 중증도 4,647명(25.7%), 중증 2,803명(15.0%)



# 4 치매노인 현황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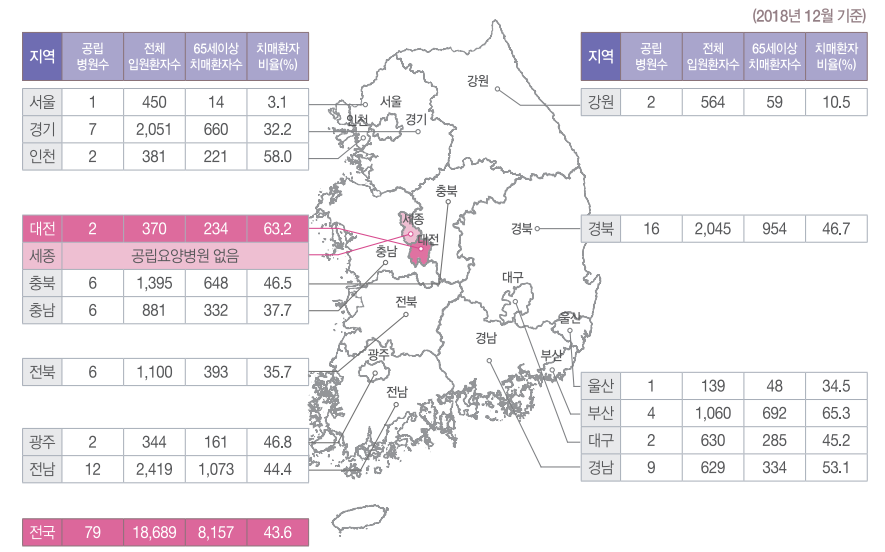
• 대전시 추정치매환자 대비 치매상병자 비율은 104.1%로 전국 101.4%에 비해 높음



## 03 치매노인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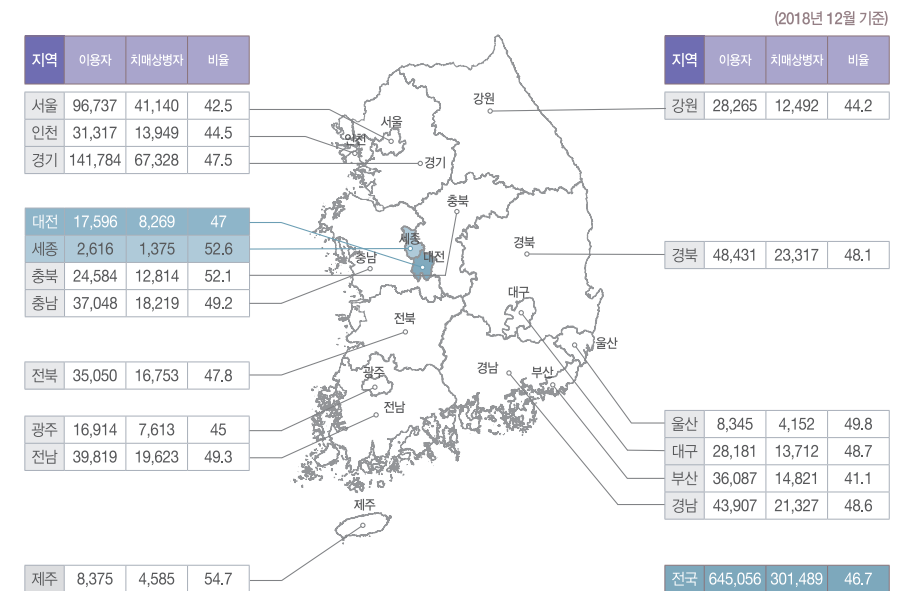
### • 공립요양병원 이용 현황

- 공립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 치매환자 비율은 전국 43.6%, 대전시는 63.2%로 전국 2위



### • 전국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상병자 분포

-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자 중 치매상병자는 전국 301,489명(46.7%), 대전시 8,269명(47.0%)으로 전국 비율과 유사함



# 4 치매노인 현황과 시사점

## 04 노인장기요양 급여별 이용 현황

- 장기요양재가급여 이용 현황**
  - 재가급여수급자(3,756명) 중 방문요양 이용자는 2,287명(60.9%), 주·야간보호 이용자는 1,364명(36.3%)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이용자는 21명(0.6%)으로 매우 적음
- 장기요양시설급여 이용 현황**
  - 시설급여수급자(3,529명) 중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는 3,254명(92.6%), 공동생활가정이용자는 260명(7.4%)
  -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이용자는 15명(0.4%)으로 매우 적음



(2018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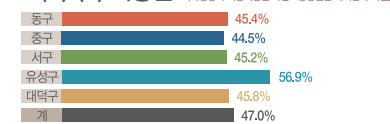
## 05 치매노인과 돌봄서비스 현황 시사점

### • 치매상병자 수와 돌봄서비스 이용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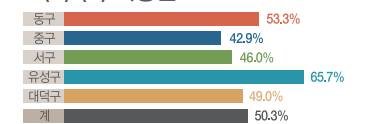
구분	65세이상 치매상병자 (A)	65세이상 중증도이상 치매상병자 (B)	공립요양병원 + 장기요양 이용자 (C) 1)	공립요양병원 +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자 (D)
동구	3,683	1,517	1,673	808
중구	4,049	1,669	1,801	716
서구	5,140	2,118	2,322	974
유성구	2,876	1,185	1,637	779
대덕구	2,334	962	1,070	471
계	18,082	7,450	8,503	3,748

1) 대전시 공립요양병원 이용자는 동구 95명, 유성구 139명

### • (C)/(A) 이용률



### • (D)/(B) 이용률



- 대전시 치매상병자 돌봄서비스 이용률 47.0%, 중증도 이상의 시설서비스 이용률 50.3%
- 중증도 이상의 치매 환자는 재가보다 시설서비스 욕구가 강함
- 치매전담 요양시설의 수가 매우 적음
- 향후 치매 환자를 위한 시설 기반 서비스 확대 필요

# 5 대전지역 예술인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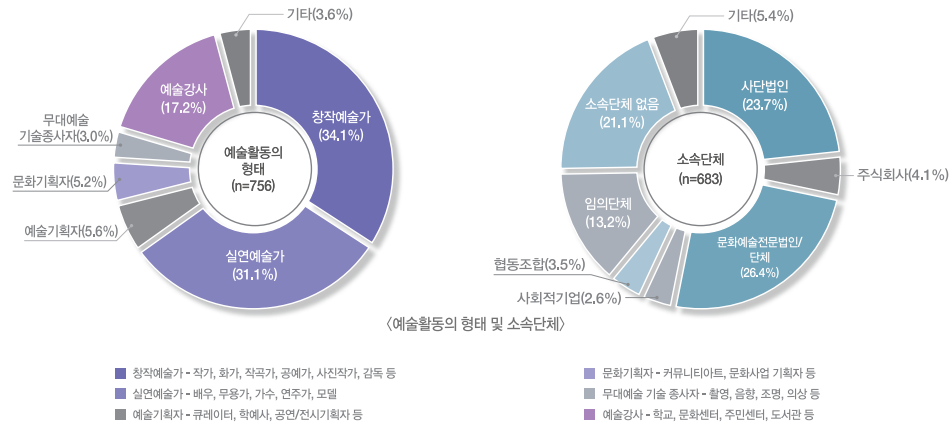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 01 예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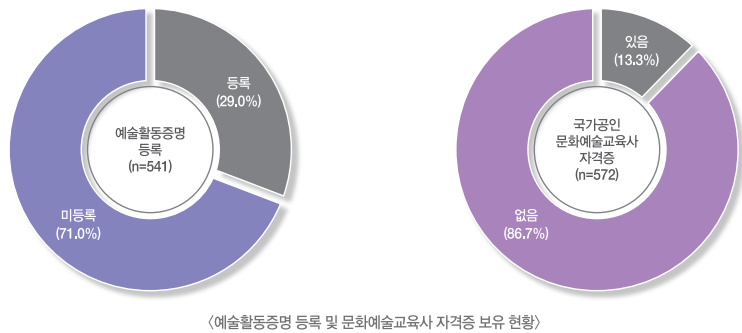
### 대전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조사 방법 개별 면접조사 + 온라인 조사  
 조사 대상 대전시 거주 문화예술 전문가(예술인 복지법 제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표본 크기 유효표본 572명  
 표본 추출 다단계 층화추출법과 눈덩이 표집을 혼합 적용(장르별 비례 층화)

- 대전지역 예술인은 대부분 창작예술과 실연예술 종사자가 많고, 문화 예술법인 / 단체 소속인이 대부분이지만, 소속단체가 없는 예술인 비율도 많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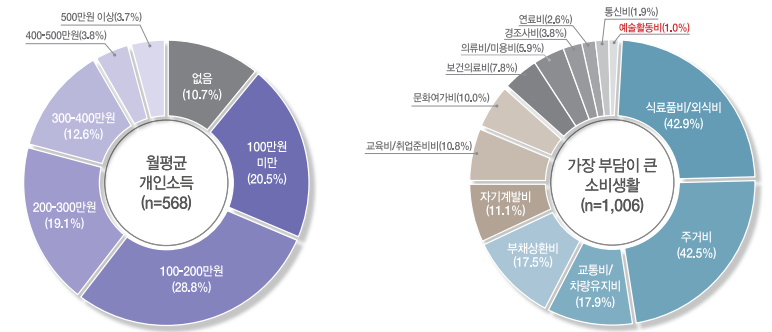


- 예술활동을 토대로 안정적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예술활동 증명 등록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획득 비율이 낮아 개선이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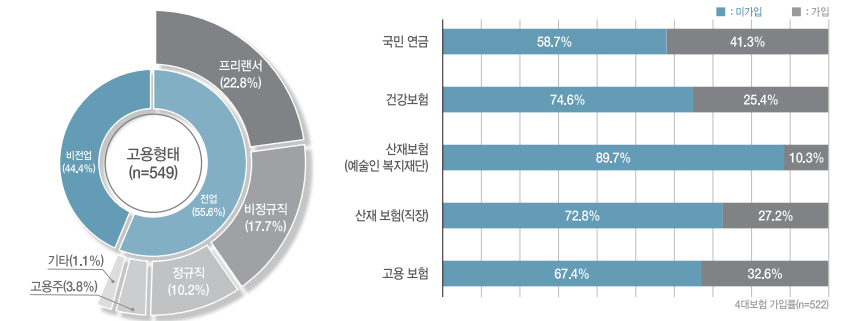
- 월평균 개인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비율이 전체의 60.0%에 이르고 있으며, 식료품비와 주거비에 대부분 소비를 하는 와중에 예술활동을 위한 소비는 매우 적은 비중을 보임

## 02 경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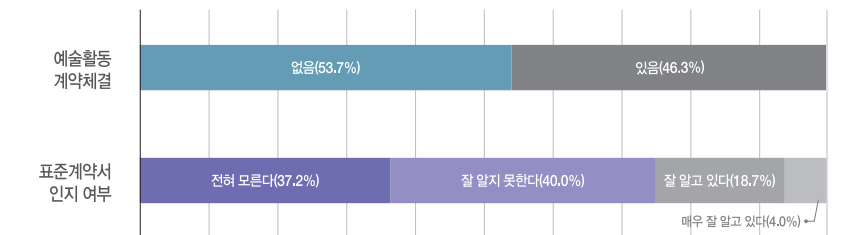
〈월평균 개인소득 및 가장 부담이 큰 소비생활〉

- 비전업 예술인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우며, 전업 예술인도 프리랜서가 다수
-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함



〈4대보험 가입 및 고용형태 현황〉

- 예술 활동시 계약 체결 비율이 낮으며, 문체부가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예술인이 대다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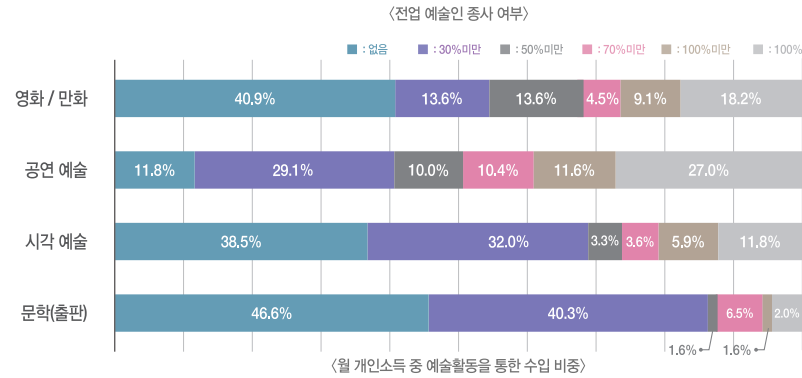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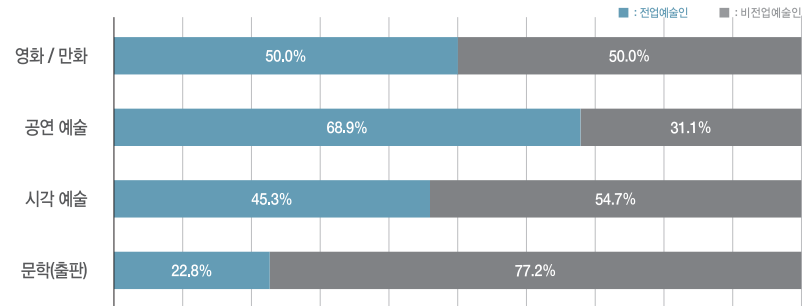
〈예술활동 계약체결 경험 및 문체부 개발/권장 표준계약서 인지 여부〉

# 5 대전지역 예술인의 실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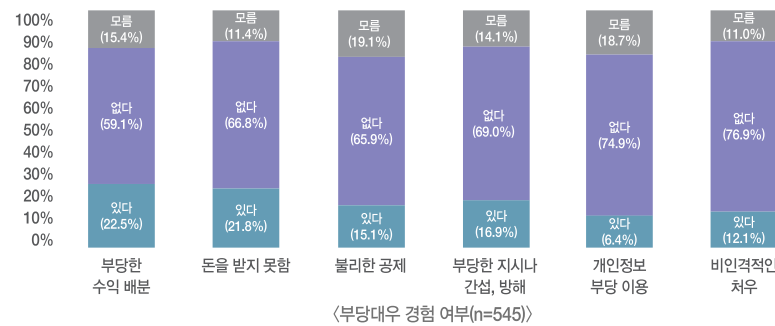
## 03 예술활동 분야별 차이

- 예술 장르별로 구분할 때, 공연예술 분야가 전업으로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문학 분야가 전업 비율이 낮음
- 개인소득 중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의 비중도 공연예술 분야가 두드러짐



## 04 불공정/부당행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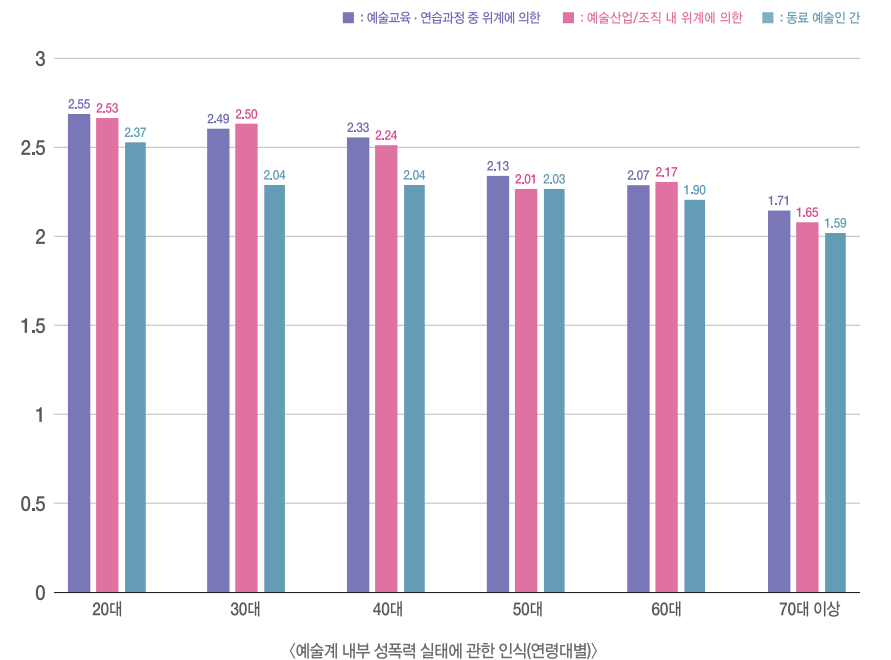
- 대전지역 예술인들은 부당대우를 당한 경험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수익 배분이나 창작활동의 대가에 관한 부당대우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예술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불공정행위 신고 상담센터와 성폭력피해 신고 상담센터는 대다수가 알고 있지 않아 홍보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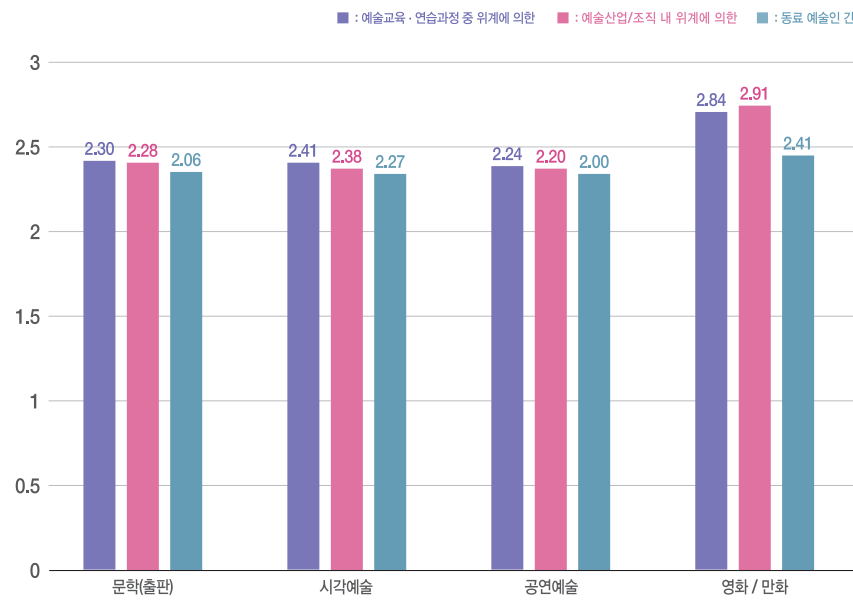
## 05 불공정/부당행위 인식

- 예술계 내부의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활동분야별로는 영화 / 만화 분야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 대전지역 예술인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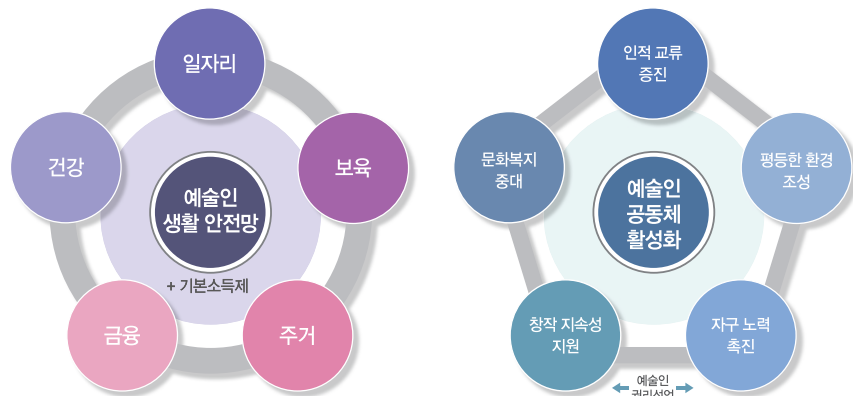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예술계 내부 성폭력 실태에 관한 인식(활동분야별)〉

## 06 시사점

- 현재 예술인 복지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향적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수도권에 비해 문화예술생태계가 매우 취약하며 대전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이 필요함
  - 특히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필수 선결요건이며, 대전예술인복지정책을 전담하는 지원 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함
- 예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예술인을 노동자로서 바라보며 예술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가치를 설정하고, 예술인의 자립을 위한 생활 안전망 확보뿐만 아니라 예술인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예술복지 증진을 촉진하는 정책을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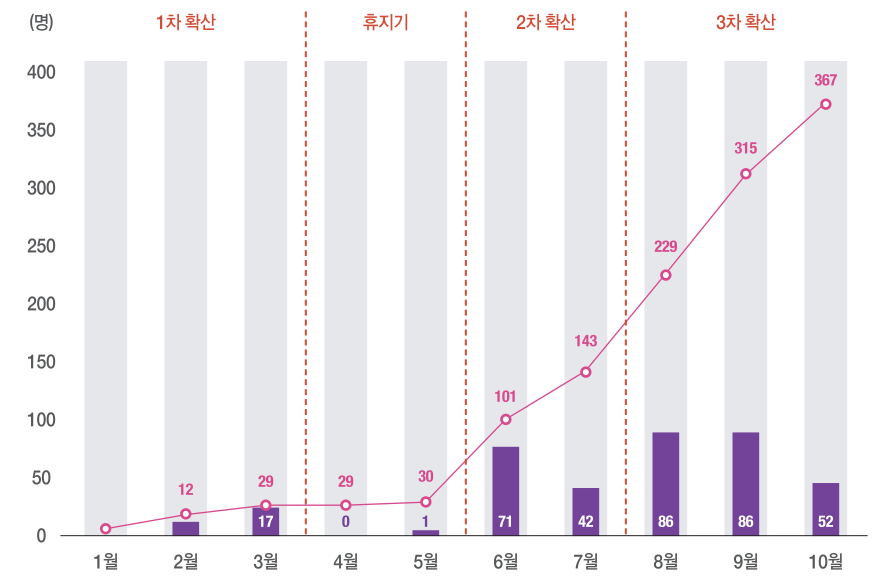


## 6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 01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현황

- 대전시는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3월 28일까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 4~5월 휴지기 이후,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코로나19 감염의 2차 확산이 시작됨
- 8월 중순부터 3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10월 15일까지 해외입국자를 제외한 대전시 거주 누적 확진자 수는 367명으로 집계됨

2020년 대전시 코로나19 월별 확진자 현황(1월 1일 ~ 10월 15일)



— 월별 확진자 수 — 누적 확진자 수  
\* 해외입국자는 제외하였으며, 국내 발생 대전시 거주 확진자만 집계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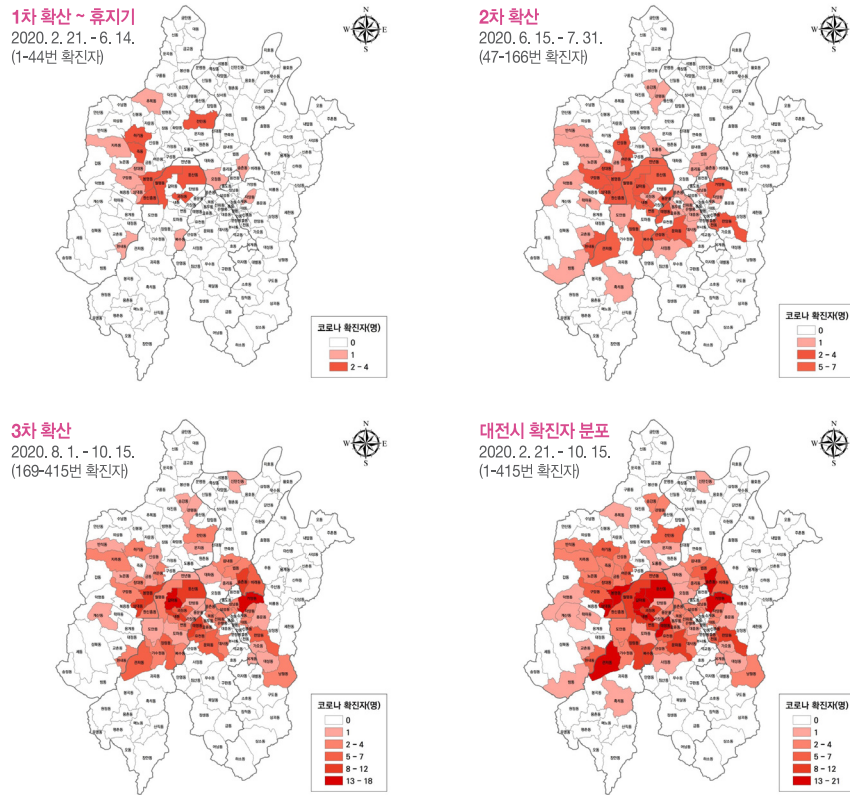
### 02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2020년 2월 21일~10월 15일)

- 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 대전시의 전체적인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분포 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서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임
  - (1차 확산 시기) 서구 둔산동을 중심으로 서구와 유성구 지역에서 확진자 발생
  - (2차 확산 시기) 서구와 유성구 외에 동구와 중구의 일부 지역까지 확산되었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
  - (3차 확산 시기) 동구 가양동과 그 주변 지역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동구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
- 대전시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2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 둔산동과 동구 가양동 일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6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 • 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 2020년 2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확진자(거주지) 분포 현황을 지도로 나타낸 것임  
\*\* 해외입국자와 대전시 거주자가 아닌 확진자는 제외하였으며,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함

## • 대전시 시기별 확진자 거주지 현황

시기 순위	1차 확산-휴지기 (2.21.-6.14.)	2차확산 (6.15.-7.31.)	3차확산 (8.1.-10.15.)	총 확진자 (2.21.-10.15.)
1	서구 둔산동(4)	서구 변동(7) 서구 월평동(7)	동구 기양동(18)	서구 둔산동(21)
2	서구 월평동(3) 유성구 전민동(3)	동구 천동(6) 서구 관저동(6)	서구 갈마동(14)	동구 기양동(20)
3	서구 괴정동(2) 유성구 봉명동(2) 유성구 원신흥동(2) 유성구 죽동(2) 유성구 하기동(2)	서구 둔산동(5) 서구 만년동(5) 서구 복수동(5) 서구 정림동(5)	서구 둔산동(12) 유성구 봉명동(12) 중구 태평동(12)	서구 갈마동(18)

\* ( )안의 수치는 확진자 수임

## • 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 군집 분석

- 대전시의 코로나19 확진자 거주지 자료를 이용하여 확산 시기별로 확진자 군집지역을 분석함
- (1차 확산 시기) 서구 월평동, 유성구 봉명동 등 서구 월평동과 그 주변 지역으로 군집 패턴이 형성됨
- (2차 확산 시기) 1차 확산 시기와 마찬가지로 확진자 군집 패턴이 서구 월평동과 그 인접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그 군집이 서구와 중구 경계에 있는 지역까지 확장된 양상을 보임
- (3차 확산 시기) 서구 월평동 중심으로 군집패턴이 형성된 것뿐만 아니라, 대덕구 송촌동과 비래동에서도 군집패턴이 형성됨
- 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 거주지 자료를 이용하여 대전시 전체의 확진자 군집 지역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확진자가 거주하는 군집지역은 서구 월평동과 그 인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소수의 확진자가 거주하는 군집지역은 대덕구 덕암동-상서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 • 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 거주 군집지역

구분	1차 확산-휴지기 (2.21.-6.14.)	2차확산 (6.15.-7.31.)	3차확산 (8.1.-10.15.)	총 확진자 (2.21.-10.15.)
다수 확진자 거주 군집지역 (Hot-spot)	유성구 장대동 유성구 봉명동 유성구 상대동 유성구 원신흥동 서구 월평동 서구 둔산동	유성구 어은동 유성구 궁동 유성구 봉명동 유성구 원신흥동 유성구 원내동 서구 월평동 서구 갈마동 서구 둔산동 서구 내동 서구 괴정동 서구 용문동 서구 정림동 서구 복수동 중구 태평동 중구 산성동 중구 사정동	유성구 장대동 유성구 구암동 유성구 봉명동 유성구 원신흥동 서구 월평동 서구 갈마동 서구 내동 서구 괴정동 중구 태평동 중구 유천동 대덕구 송촌동 대덕구 비래동	유성구 장대동 유성구 구암동 유성구 봉명동 유성구 상대동 유성구 원신흥동 서구 월평동 서구 갈마동 서구 둔산동 서구 괴정동 서구 내동 서구 영문동 서구 변동 서구 기수원동 중구 태평동 중구 유천동 중구 산성동 대덕구 송촌동 대덕구 비래동
소수 확진자 거주 군집지역 (Cold-spot)	-	-	대덕구 신일동 중구 문창동	대덕구 신일동 대덕구 목상동 대덕구 덕암동 대덕구 상서동 대덕구 평촌동 동구 마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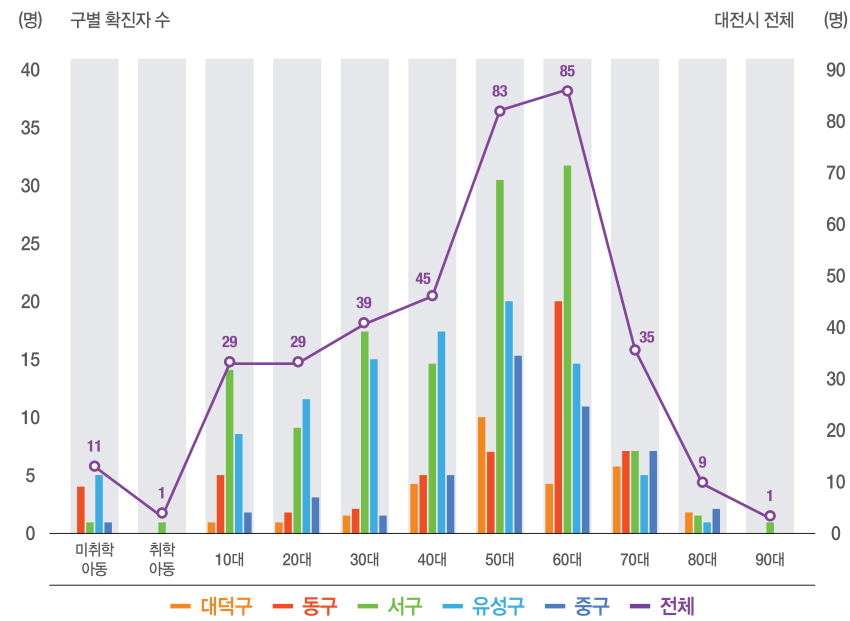
\* 2020년 2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확진자의 거주지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군집분석한 결과를 표로 작성한 것임

## 6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 03 연령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 ● 대전시 연령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 대전시의 확진자는 전체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50~60대의 확진자가 많음
- 서구와 동구는 60대의 확진자가 많고 유성구, 중구와 대덕구는 50대의 확진자가 많음
- 50대 이상 확진자가 대전시 전체 확진자 수의 5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교적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감염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대전시 거주 확진자 중 청소년인 확진자는 총 29명으로 서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법정동 기준으로는 서구 갈마동·내동·둔산동, 동구 천동, 유성구 봉명동에 많이 거주
- (청년층 확진자) 총 68명으로 유성구와 서구에 많이 거주하고, 법정동 기준으로는 유성구 봉명동·상대동·전민동, 서구 관저동·월평동에 많이 거주
- (중장년층 확진자) 총 213명으로 서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법정동 기준으로는 서구 둔산동과 갈마동, 동구 가양동에 많이 거주
- (노년층 확진자) 총 45명으로 서구와 중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법정동 기준으로는 동구 가양동, 대덕구 송촌동·법동, 중구 태평동, 서구 변동에 많이 거주

#### ● 대전시 생애주기별 확진자 거주지 현황

생애주기 순위	청소년층(10대)	청년층(20-30대)	중장년층(40-60대)	노년층(70대 이상)
1	서구 갈마동(4)	유성구 봉명동(7)	서구 둔산동(15)	동구 가양동(5)
2	동구 천동(3)	서구 관저동(5)	서구 갈마동(12)	대덕구 송촌동(3)
3	서구 내동(3)	서구 월평동(5)	동구 가양동(11)	중구 태평동(3)
4	서구 둔산동(3)	유성구 상대동(4)	대덕구 송촌동(8)	서구 변동(3)
5	유성구 봉명동(3)	유성구 전민동(4)	중구 태평동(6)	대덕구 법동(3)

\* 2020년 2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주지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며, 해외입국자와 실거주지가 대전시가 아닌 확진자는 제외함

## 7 초등돌봄 실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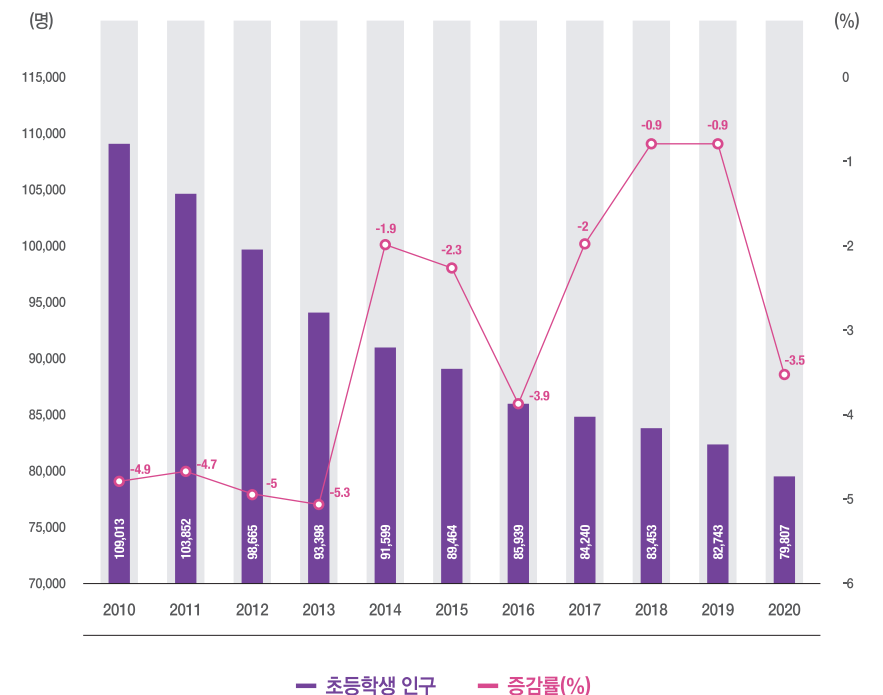
### 개요

-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은 대부분 미취학 영·유아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
- 이에 대전시의 초등돌봄 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수립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 대전시 초등돌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 통계청 인구 총조사, 대전시 교육통계, 2020 범국민초등돌봄수요조사
  - 대전시 거주 초등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 01 초등학생 인원 및 추이

- 대전시의 초등학생 인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2019년까지 대전시 초등학생 인구의 감소세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2020년에 감소세가 다시 증가

대전시 초등학생 인구 추이



— 초등학생 인구 — 증감률(%)

\* 자료 : 대전교육통계연보(매년 4월 기준)



## 7 초등돌봄 실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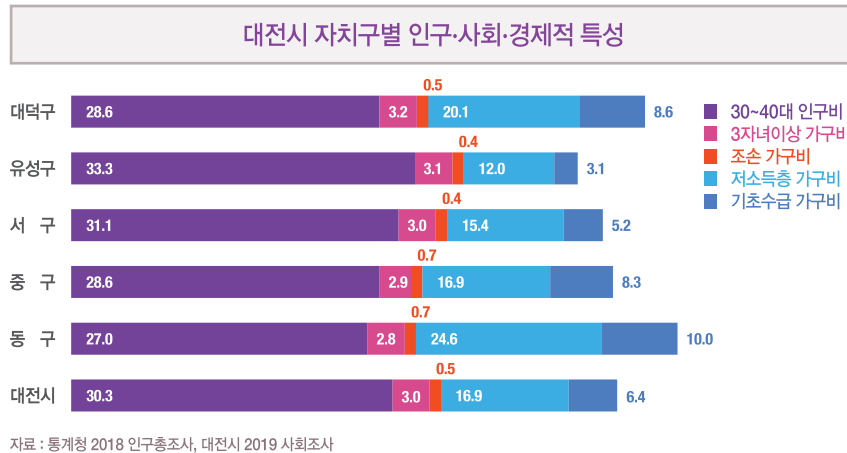
- 자치구별 초등학생 인원 추이를 보면, 모든 자치구에서 감소세가 나타나며, 특히 유성구의 감소세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조금 더 높음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1학급당 학생수	1학급당 학생수 추이(증감)*
동구	23	543	10,740	19.8	-0.5
중구	27	605	11,797	19.5	-0.5
서구	39	1,166	26,179	22.5	-0.3
유성구	38	1,067	22,814	21.4	-0.7
대덕구	21	458	8,277	18.1	-0.5

자료 : KESS교육통계서비스(2020. 9. 기준)  
\* 1학급당 학생수 추이(증감)는 전년도인 2019년과 비교한 수치임

## 02 초등돌봄 관련 인구·사회 경제적 특성

- 대전시 초등돌봄 관련 지역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보면, 30~40대 인구비는 유성구와 서구가 높고, 3자녀 이상 가구비는 모든 자치구가 유사하며, 조손가구비, 저소득층 가구비, 기초수급가구비는 동구와 대덕구가 높음
- 즉, 동구와 대덕구의 초등학생 수는 적지만, 초등돌봄에 대한 잠재적 요구는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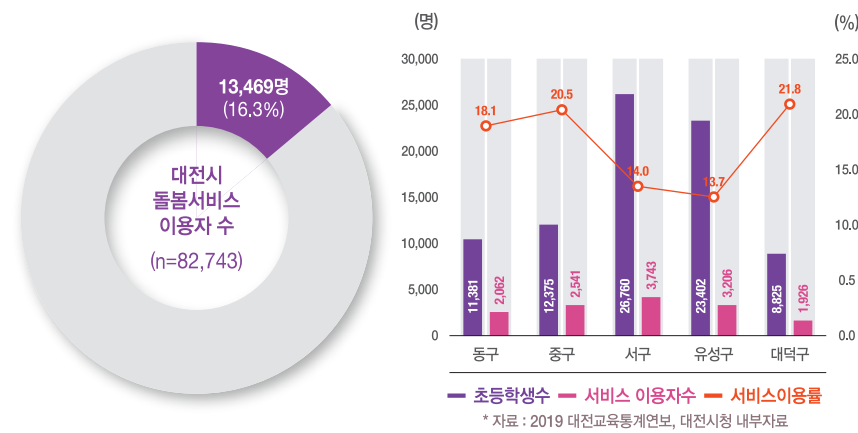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8 인구총조사, 대전시 2019 사회조사

## 03 초등돌봄 기관 이용 현황

- 대전시의 전체 초등학생 82,743명(2019. 12.) 중에서 방과 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학생은 13,469명으로 16.3% 정도의 학생이 이용
- 자치구별로 보면, 대덕구가 21.8%로 가장 많이 이용
- 서구(14.0%)와 유성구(13.7%)는 15% 미만으로 이용

## 대전시 초등학생 규모와 방과 후 돌봄 기관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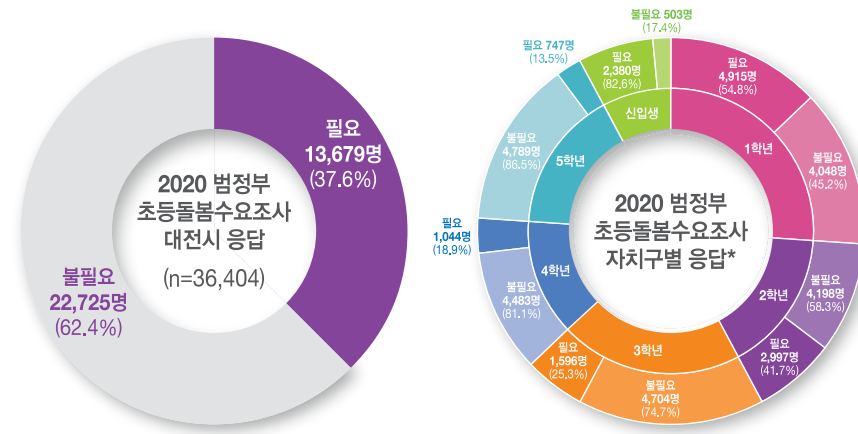


\* 자료 : 2019 대전교육통계연보, 대전시청 내부자료

## 04 초등돌봄 서비스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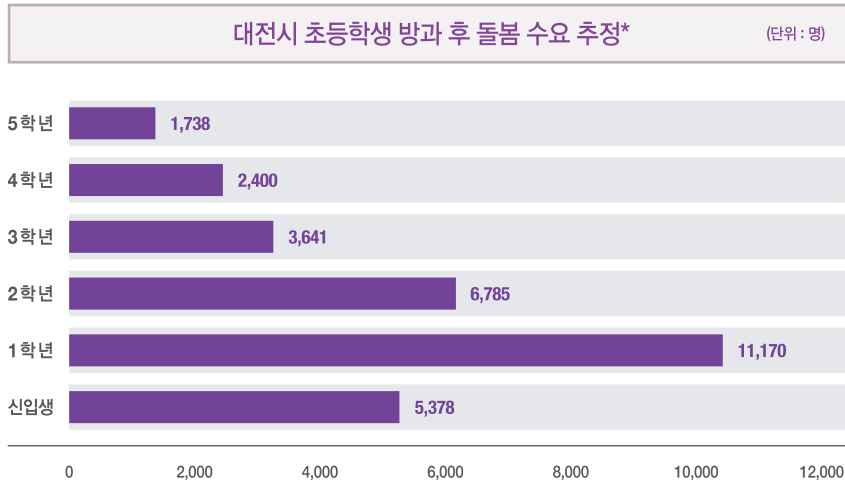
- 2020 범정부 초등돌봄수요조사에서 대전시 전체 응답자 36,404명 중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37.6%였고, 학년별로는 신입생이 82.6%로 가장 높음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수는 약 31,112명으로 추정

## 대전시 방과 후 돌봄 수요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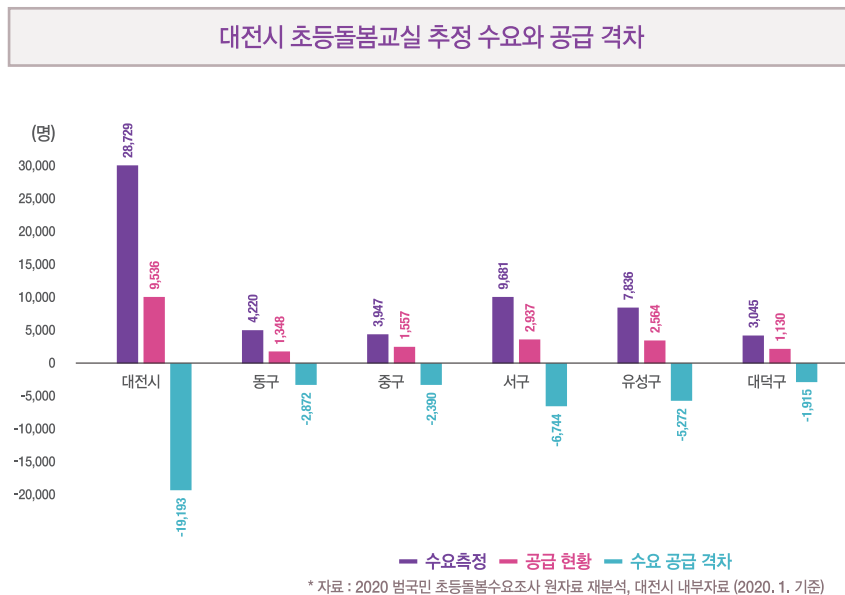
\*위의 조사대상은 전국초등학교 재학생(1-5학년) 및 어린이집 재원중인 예비 취학아동(2020.3.1. 기준 초등학교 입학예정자=신입생)임

# 7 초등돌봄 실태는?



자료 : 대전시 교육청 학교 현황(2019. 10.), 2020 범국민 초등돌봄수요조사 원자료 재분석  
\*추정치는 범국민 초등돌봄수요조사의 응답 비율을 대전시 전체 초등학생 수로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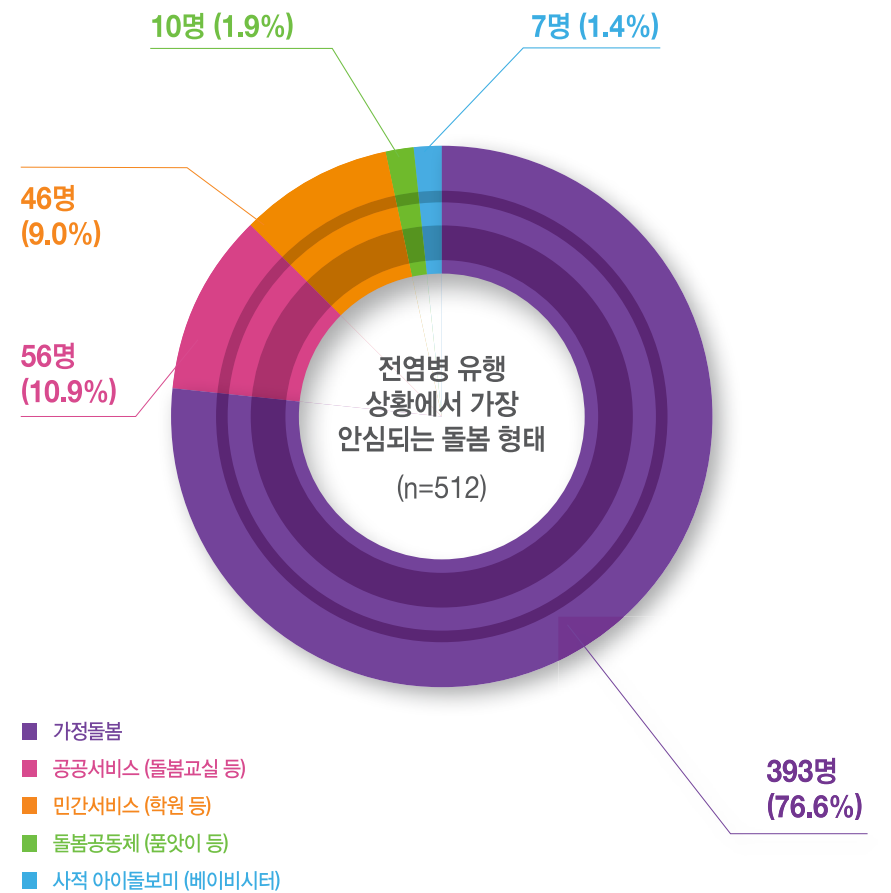
- 돌봄서비스 중 가장 수요가 높은 초등돌봄교실의 수요 공급 격차는 19,193명 정도로 추정  
- 자치구별로 보면, 서구가 가장 많은 6,744명이 더 필요로 하고 있고, 유성구(5,272명), 동구(2,872명), 중구(2,390명), 대덕구(1,915명) 순으로 나타남



# 05 코로나19 이후 돌봄 수요

- 대전시 초등학생 보호자 512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 유행상황에서 가장 안심이 되는 돌봄형태는 가정돌봄(76.6%)으로 나타남  
- 공공서비스는 10.9%, 민간서비스는 9%로 공공과 민간에 대한 신뢰의 차이는 거의 없음

전염병(코로나19 등) 유행 상황에서 가장 안심이 되는 돌봄 형태



# 06 시사점

- 전반적인 초등학생 감소 추이에도 불구하고, 초등돌봄 수요·공급 격차는 존재하며, 구체적인 수요의 내용은 자치구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
- 공급확대에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면밀한 수요조사가 필요

대전세종인포그래픽스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도시·환경



# 8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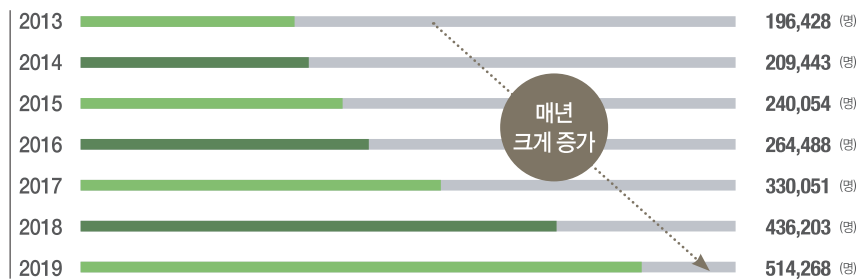
차량 증차 및 서비스 개선 필요

## 01 특별교통수단은 몇 명이 이용하고 있나?

• 2019년 기준 연간 514,26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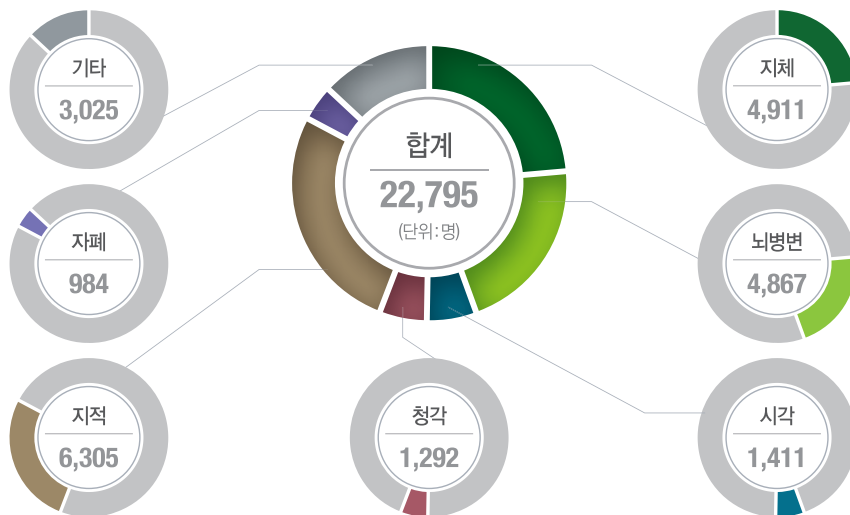
대전시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이용건수 및 증가율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이용객수(명)	196,428	209,443	240,054	264,488	330,051	436,203	514,268
증가율(%)	(-)	6.6	14.6	10.2	24.8	32.2	17.9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장애인은 22,795명

대전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장애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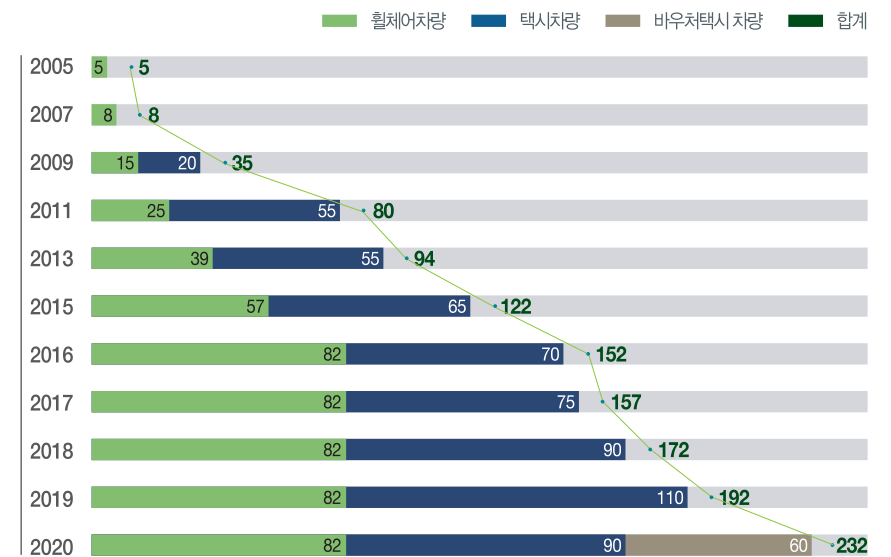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자폐	기타	합계
명	4,911	4,867	1,411	1,292	6,305	984	3,025	22,795
%	21.5	21.4	6.2	5.7	27.7	4.3	13.3	100.0

## 02 특별교통수단은 몇 대가 운행되고 있나?

• 대전시 특별교통수단은 2005년 휠체어차량 5대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2020년 현재 휠체어 차량 82대, 택시차량 90대, 바우처택시차량 60대로 총 232대 운행

대전시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보급 현황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휠체어차량(대)	5	8	15	25	39	57	82	82	82	82	82
택시차량(대)	-	-	20	55	55	65	70	75	90	110	90
바우처택시차량(대)	-	-	-	-	-	-	-	-	-	-	60
합계(대)	5	8	35	80	94	122	152	157	172	192	232



대전시 특별교통수단 차량 현황(2019)



휠체어차량

전용택시차량

바우처택시차량



## 8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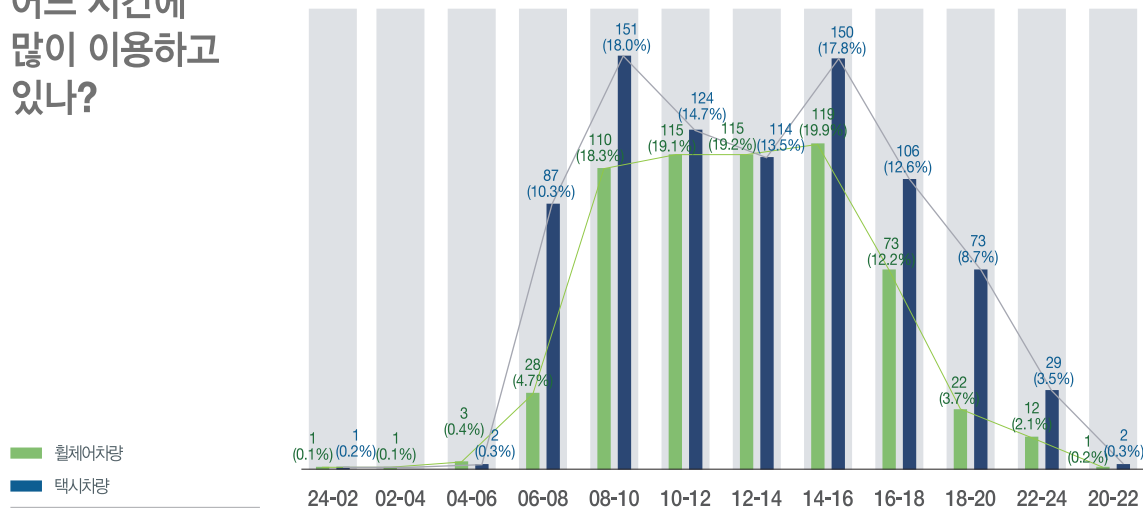
차량 증차 및 서비스 개선 필요

### 03

특별교통수단은 어느 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있나?

- 8-16시 이용객이 전체의 69.2%를 차지하며, 특히 8-10시(18.1%), 14-16시(18.6%)에 이용객이 가장 많음

특별교통수단 유형별 시간대별 이용객수 현황(명)



### 04

특별교통수단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나?

- 서구 29.8%, 중구 26.0%, 동구 16.0%, 대덕구 13.4%, 유성구 13.3%, 시계외 1.3% - 인구 1만 명당 이용대상 장애인은 중구, 대덕구, 동구가 많고, 서구 및 유성구는 상대적으로 적음

특별교통수단 이용객수 및 인구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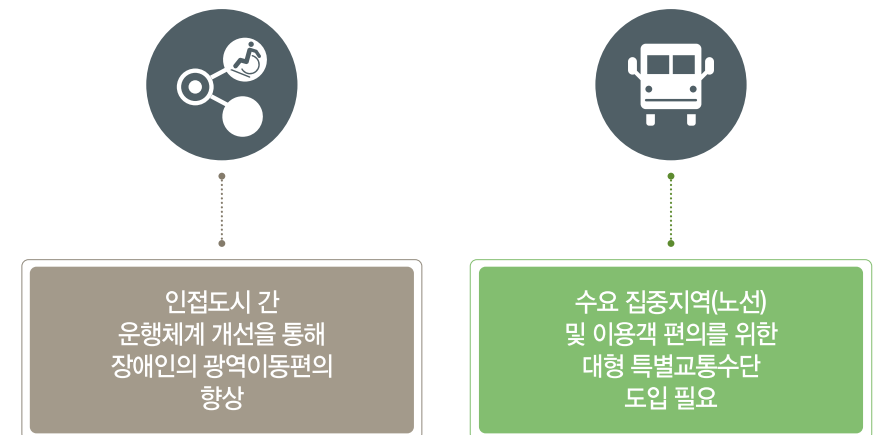
구분	이용객수(명)	비율(%)	인구(천명)	인구 1만명당 이용객수(명)
동구	231	16.0	229	10.0
중구	375	26.0	244	15.6
서구	429	29.8	485	8.8
유성구	192	13.3	350	5.5

• 주 : 2019년 7~8월 1일 평균 이용객수 / 인구는 2018년도 주민등록 인구기준  
 • 주 : 시계외 이용객수는 대전-세종 5명, 대전-옥천 5명, 대전-금산 3명, 대전-논산 2명, 대전-계룡 2명, 대전-청주 1명임  
 • 자료 : 대전의 통계 (<https://www.daejeon.go.kr/sta/index.do>) 대전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내부자료

### 05

시사점

- 대형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여러 사람이 이동하는 경우 서비스 지원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전 주변도시로 이동하는 경우 되돌아오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9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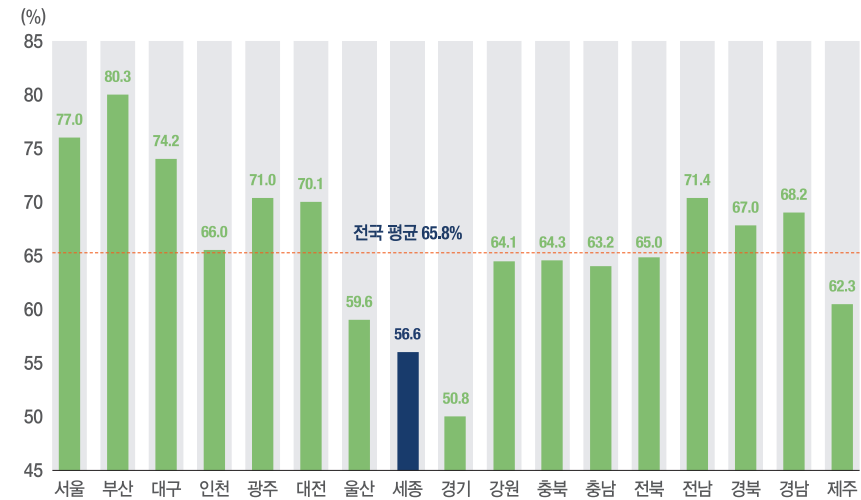
## 노후건축물이란?

- 노후화 및 훼손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건축물
- 「건축법」에서는 안전과 재난에 취약한 '20년 이상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 가능토록 규정

## 01 시도별 노후건축물

- 전국 건축물의 65.8%가 2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이며, 세종시는 56.6%(행정도시 포함)

시도별 노후건축물(20년 이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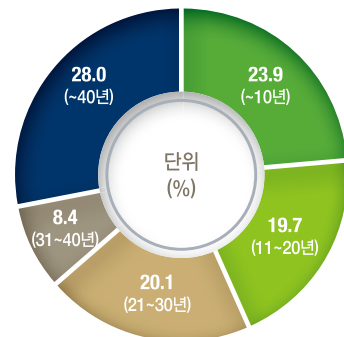


## 02 세종시 읍면지역 노후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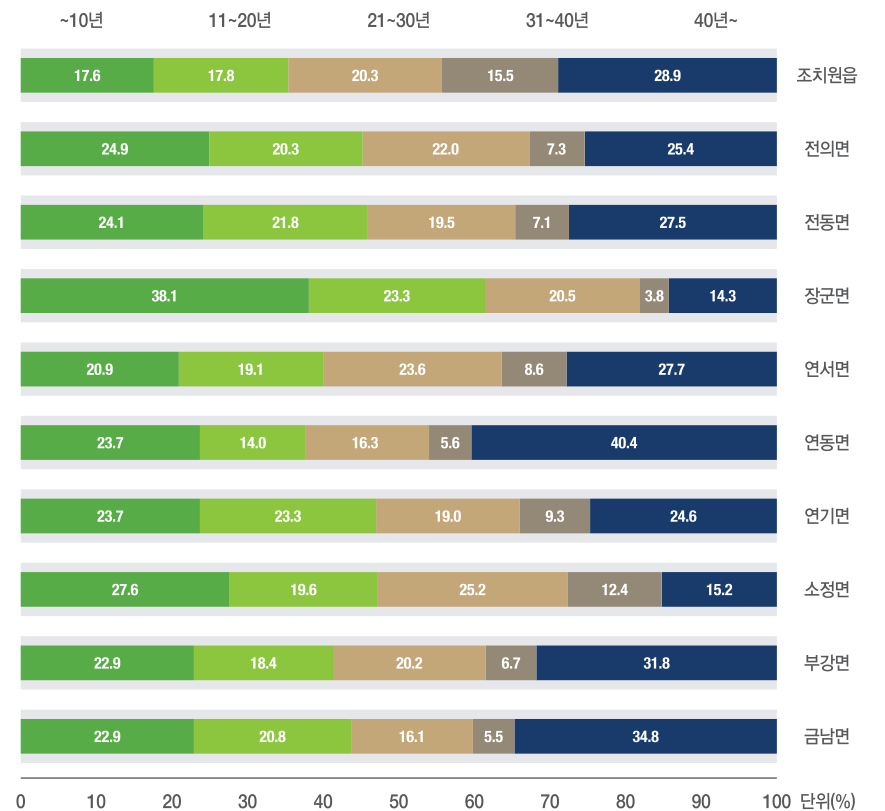
- 세종시 읍면지역의 건축물(31,650동)중 56.5%(17,873동)가 2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에 해당(세종시 건축물대장)

읍면지역의 건축물 노후년도

구분	건축물 전체	
	동수	비율(%)
~ 10년	7,555	23.9
11 ~ 20년	6,222	19.7
21 ~ 30년	6,348	20.1
31 ~ 40년	2,666	8.4
40년 ~	8,859	28.0
합계	31,6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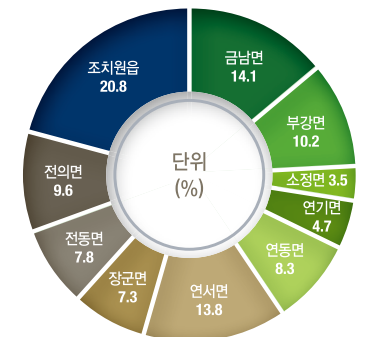
읍면별 건축물 노후년도



- 읍면별 노후건축물 분포: 최고 조치원읍 3,723동, 최저 소정면 626동

읍면별 노후건축물 분포

구분	노후건축물수(동)	비율(%)
금남면	2,518	14.1
부강면	1,825	10.2
소정면	626	3.5
연기면	832	4.7
연동면	1,482	8.3
연서면	2,467	13.8
장군면	1,299	7.3
전동면	1,386	7.8
전의면	1,715	9.6
조치원읍	3,723	20.8
합계	17,87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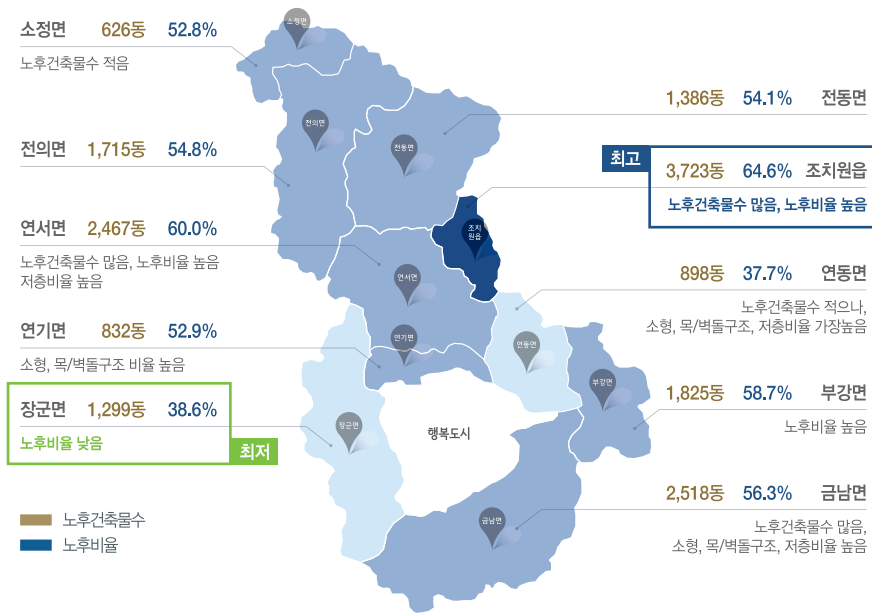




# 9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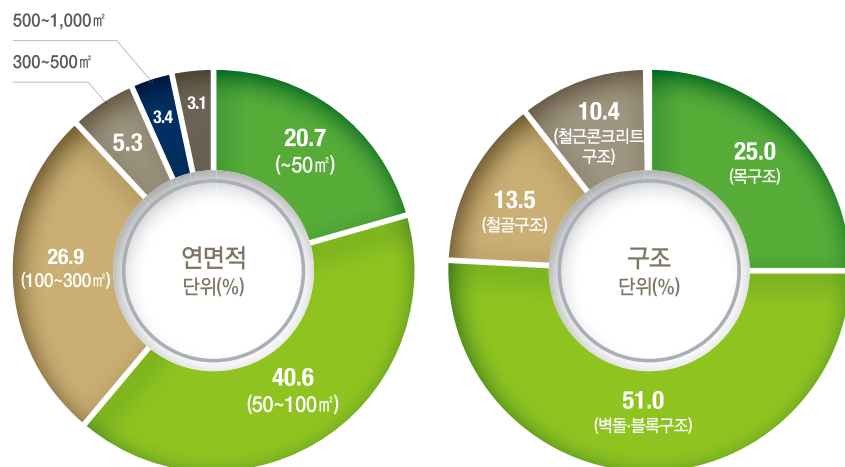
• 읍면별 노후건축물 비율: 전체건축물 대비 최고 조치원읍 64.6%, 최저 장군면 38.6%

읍면별 노후건축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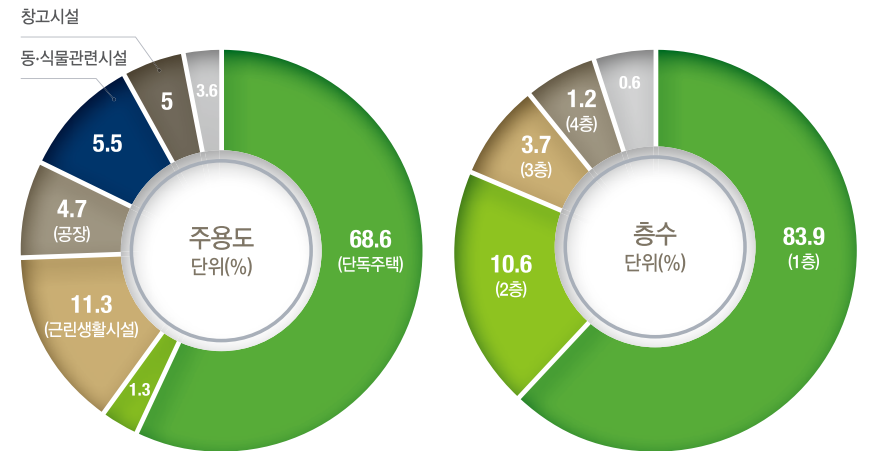


• 노후건축물의 세부 구성

연면적 50㎡ 미만 27.0%, 벽돌·블록구조 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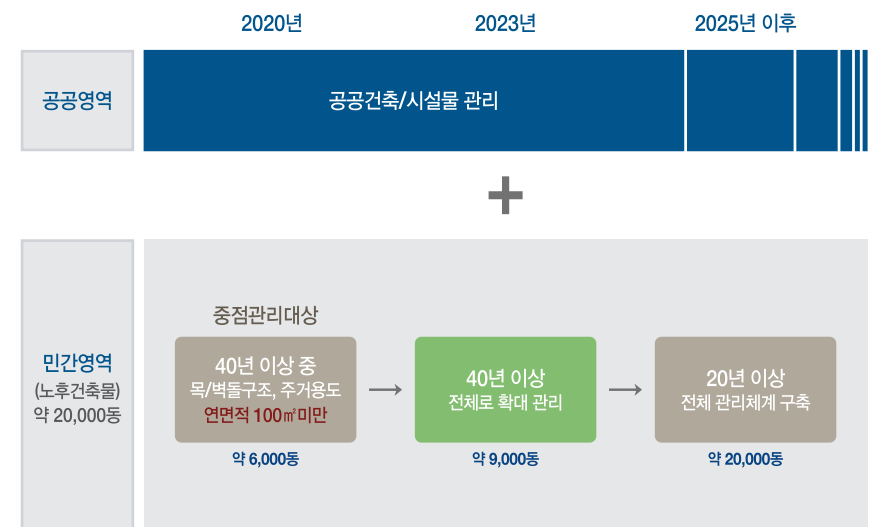
단독주택 68.6%, 1층 83.9%



## 03 시사점

- 세종시 전역에 노후건축물 약 2만 동이 광범위하게 분포  
- 단기간에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한계
- 40년 이상의 열악한 건축물 중심으로 안전관리정책 시행 필요  
- 세종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관리대상 확대

건축물 안전관리대상 확대적용(예)





# 10 빈집분포 특성 및 시사점

## 빈집이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의(소규모주택정비법)
- 상기 법률상 빈집에 대한 공간적 범위는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주택)으로 국한

## 01 빈집실태 조사 및 판정기준

- 「소규모주택정비법」을 근거로 시장·군수 등은 빈집 실태조사 실시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 빈집정비계획 수립 → 빈집정비사업 추진토록 규정
- 국토교통부(2018.2 고시)의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국내 빈집의 판단 기준 및 등급 분류는 다음 절차에 의해 수행됨

빈집 추정	
- 전력사용량 등의 건축물 에너지, 상수도 단수정보, 기타 에너지사용량 정보 등을 활용, 미거주 기간으로 확인된 기간의 최초 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주택 우선적으로 추정	
구분	추정 사용량
전기 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3.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Kwh 이하인 경우 4.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상수도 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 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현장 조사	
- 1차로 추정된 빈집 대상으로 현장 조사 실시, 8개의 판별기준 중 4가지 이상 충족시 빈집으로 판정	
연번	체크 항목
1	계량기가 움직이지 않거나 철거됨(전자식 계량기의 경우 '0')
2	요금 미납에 따른 독촉안내서, 공-폐가 및 출입금지 안내서 부착 등
3	출창호가 깨진 채로 방치되거나 지붕·외벽 등이 물리적으로 파손
4	우편함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적치됨
5	주택 외부의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음
6	자물쇠 등으로 입구가 막혀있거나 출입 흔적 없음
7	주택 내부에 가구 및 살림살이(거주 흔적)가 없음
8	기타 빈집으로 판별 가능한 사유(예: 지역주민 진술 또는 일부 멸실 등)

## 02 빈집수

- 빈집실태 조사 결과 대전시의 빈집은 총 3,858호로 집계됨
- 양호한 빈집(1등급)은 1,498호, 일반 빈집(2등급)은 1,632호, 불량한 빈집(3등급)은 462호, 철거대상 빈집(4등급)은 271호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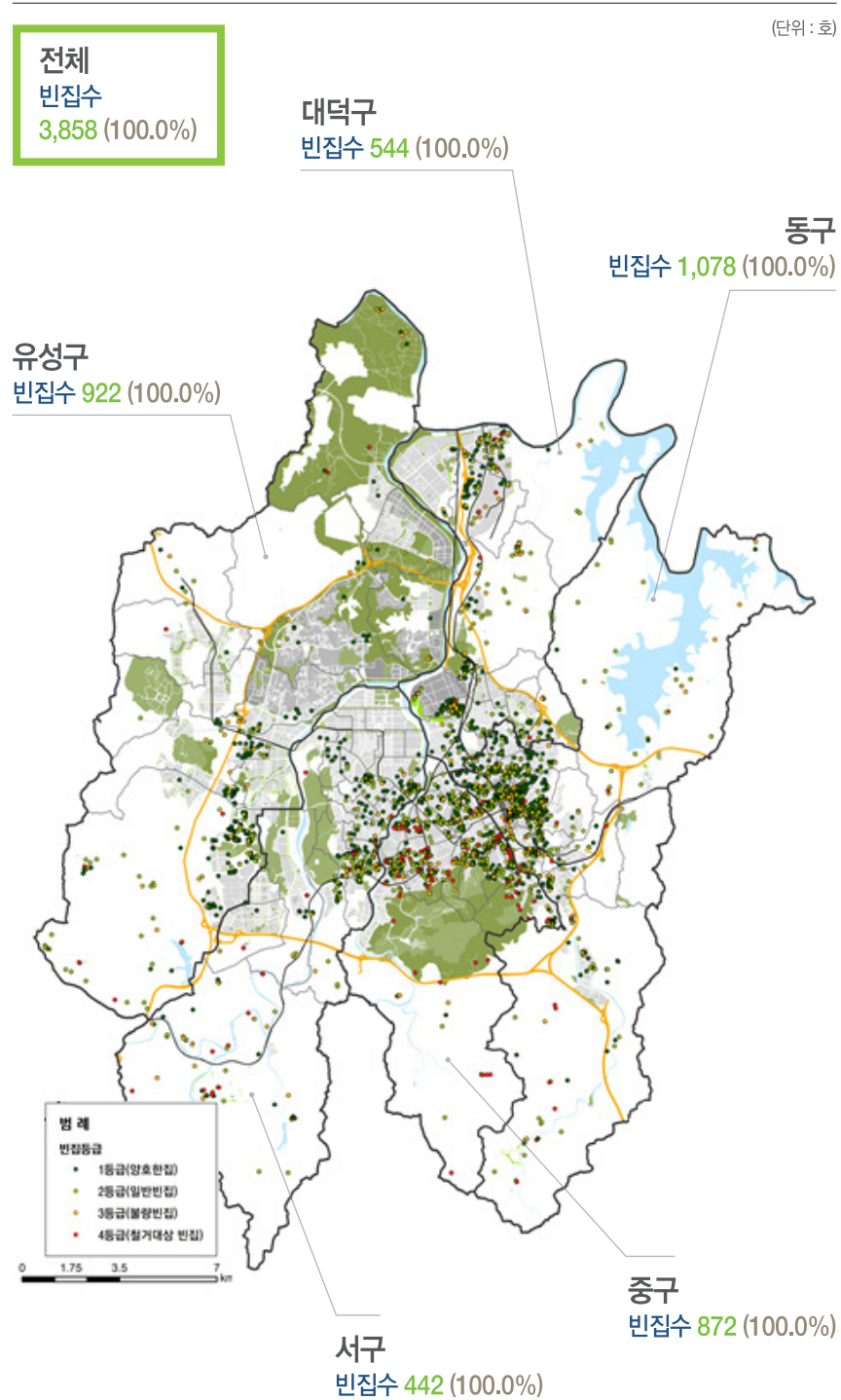
구	조사원료	조사결과			
		등급1	등급2	등급3	등급4
전체	3,858	1,498	1,632	462	271
	(100.0%)	38.8%	42.3%	12.0%	7.0%
동구	1,078	380	459	188	51
	(100.0%)	35.3%	42.6%	17.4%	4.7%
중구	872	178	424	118	152
	(100.0%)	20.4%	48.6%	13.5%	17.4%
서구	442	167	196	46	33
	(100.0%)	37.8%	44.3%	10.4%	7.5%
유성구	922	521	359	33	9
	(100.0%)	56.5%	38.9%	3.6%	1.0%
대덕구	544	250	192	76	26
	(100.0%)	46.0%	35.3%	14.0%	4.8%





# 10 빈집분포 특성 및 시사점

## 03 빈집 분포 현황



## 04 주택유형별 빈집

(단위: 호)

구분	1등급 (양호한집)	2등급 (일반빈집)	3등급 (불량빈집)	4등급 (철거대상 빈집)	총합계
대전시	1,486	1,640	461	271	3,858
단독주택(다가구)	547	972	286	174	1,979
공동주택(다세대/연립)	680	328	9	3	1,020
아파트	83	5	1	0	89
그 외 주택	176	335	165	94	770

## 05 건축구조별 빈집

(단위: 호)

구분	1등급 (양호한집)	2등급 (일반빈집)	3등급 (불량빈집)	4등급 (철거대상 빈집)	총합계
대전시	1,486	1,640	461	271	3,858
10년미만	20	1	0	0	21
10년-20년미만	485	283	2	1	771
20년-30년미만	246	42	3	1	292
30년-40년미만	214	260	76	33	583
40년-50년미만	241	396	75	49	761
50년이상	65	242	119	70	496
미표기	215	416	186	117	934

(단위: 호)

구분	1등급 (양호한집)	2등급 (일반빈집)	3등급 (불량빈집)	4등급 (철거대상 빈집)	총합계
대전시	1,486	1,640	461	271	3,858
경량철골구조	19	10	0	1	30
기타구조	10	23	15	7	55
벽돌구조	432	573	110	59	1,174
블록구조	71	215	75	40	401
일반목구조	36	165	75	54	330
일반철골-콘크리트구조	1	2	0	0	3
철근콘크리트구조	721	269	6	2	998
미표기	196	383	180	108	867



## 10 빈집분포 특성 및 시사점

### 06 빈집 정비 및 활용 가능 방식

- 빈집 활용방식은 크게 철거 정비형, 전대 활용형, 매입 활용형 등으로 정비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

빈집 활용 방식

구분	철거 정비 방식	전대 활용 방식	매입(처분) 활용 방식
활용 유형	공지 활용형	공공 수익모델 활용형	공유자산 활용형
사업 주체	지자체	NPO,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건설업자, 공유기업, 부동산투자회사 등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등
용도	휴식공간(삼지공원), 텃밭, 체육시설, 공용 주차장, 녹지 등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도서관 등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동이용 시설, 게스트하우스, 기숙사 등의 공유 주택 및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적 보호시설 등	주민커뮤니티시설, 청년창업공간, 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복지시설,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등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모델링(수선, 증·개축, 신축 등) 비용 보조</li> <li>• 임대료 보조</li> <li>• 융자지원 및 우대</li> <li>• 사업 컨설팅 등</li> </ul>		
국내사례	부산시 등 지자체 폐가 철거 사업, 빈집정비 사업 등	두꺼비하우스, 우주, 선랩, 지립, 민와일 스페이스 등의 빈집 활용, 씨앗+(서울 창동), 다울 공동체(수원시 팔달구), 예술창작촌(순천시), 소제창작촌(대전시 동구) 등	LH공사의 보유토지 및 매입임대 주택을 활용한 행복주택, 레지던시 지원사업 등

- 빈집 소유자 확인 및 빈집 활용 유무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빈집관리체계 마련 필요
  - 대전시 전체 빈집 3,858호 중 소유자가 불명확하거나, 수신거부, 면담거절, 연락처가 없어 면담이 불가능했던 빈집의 수가 1,246호로 전체 32.3%를 차지
  - 과세대상 등 보다 명확한 공공행정 데이터 활용을 통해 빈집 소유자를 파악하고, 빈집의 발생 이유와 향후 활용계획 등에 대한 빈집 소유자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빈집관리 체계 마련 필요

(단위: 호)

구분	1등급 (양호한집)	2등급 (일반빈집)	3등급 (불량빈집)	4등급 (철거대상 빈집)	총합계
대전시	1,486	1,640	461	271	3,858
소유자불명	48	95	27	22	192
수신불가	102	114	21	23	260
면담거절	15	14	3	2	34
연락처없어 면담불가	247	330	110	73	760
면담완료	1,074	1,087	300	151	2,612

## 11 대중교통 소외지역, 공공형 택시는 어때?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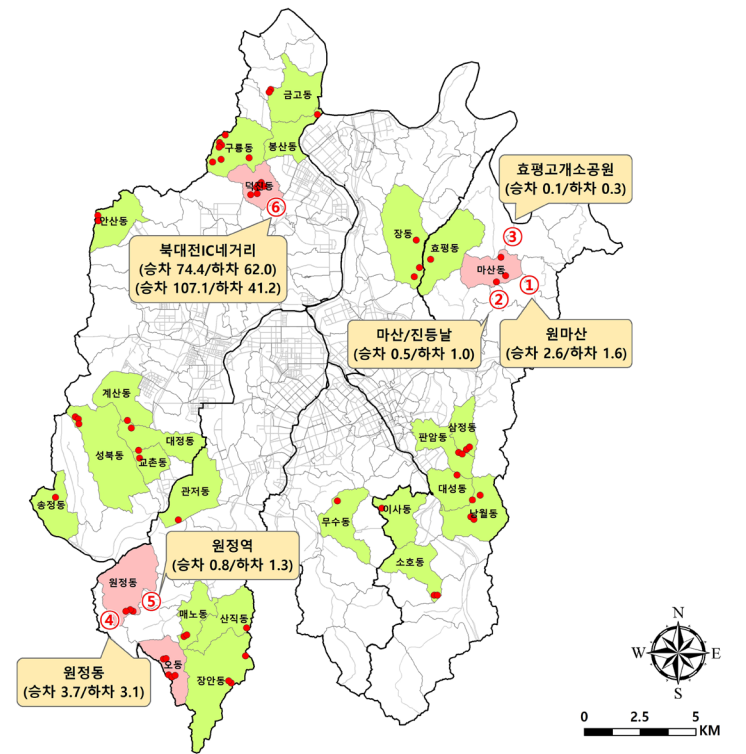
- 대전시 대중교통 이용객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으로 발생한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교통편의 확보를 위한 개선 요구가 늘어나면서 교통편의 증진과 재정지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형 택시의 도입을 위한 교통소외 지역을 알아보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01 대중교통 소외지역 분석

- 대전시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이격거리가 1,000m 이상 떨어진 가구를 분석한 결과 각각 134가구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동구 마산동, 서구 원정동, 유성구 덕진동이며 해당 동의 일일 평균 승하차 인원은 아래와 같음

교통 소외지역 정류소별 승하차 승객수

(단위: 명/일)



※ 2019.5.1.~11.30 총 승하차 승객 일평균  
 ※ 이격거리 1,000m 이상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동 기준

• 이격거리 1,000m 이상 가구  
 ■ 이격거리 1,000m 이상 가구 높은 비율 소재 동  
 ■ 이격거리 1,000m 이상 가구 소재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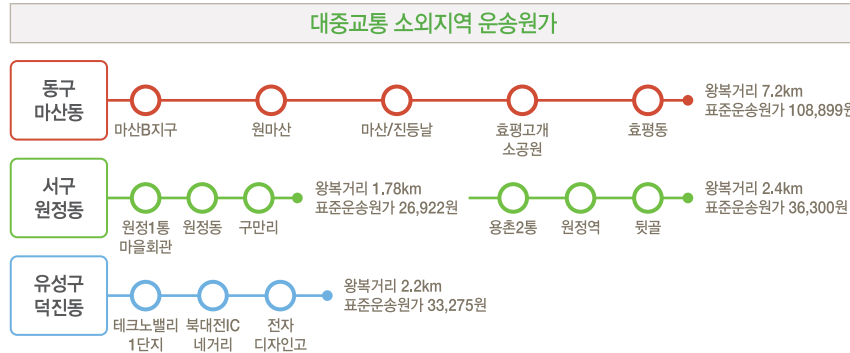


# 11 대중교통 소외지역, 공공형 택시는 어때?

## 02 공공형 택시 도입방안

- 공공형 택시 예약 방법은 앱 기반의 예약과 콜 기반의 예약 방법이 있음
  - 앱 기반 : 카카오 T, T-map 택시 등
  - 콜 기반 : 양반콜, 한빛콜 등
- 공공형 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 시내버스 요금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함
- 비용 편의 분석을 통해 산정된 공공형 택시 비용과 버스 운송원가를 비교한 결과, 비용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음
  - 거리를 제한하여 약 5천원의 편도 비용(왕복 1만원)을 지원할 시 일 평균 3~4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

대전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1일 1대당 표준운송원가 평균					
도시형 일반	중형	저상			평균
		일반	3문저상	전기저상	
516,376원	384,603원	514,601원	514,185원	501,473원	486,248원
시내버스 1일 1대당 왕복거리 평균					39,71km
시내버스 1일 1대당 왕복횟수 평균					5.67회
1회당 표준운송원가 (1일 표준운송원가/평균왕복횟수)					85,758원
1km당 표준운송원가 (1회당 표준운송원가/왕복거리 평균)					15,125원



## 03 시사점

- 택시의 서비스 공급 시간에 이용자가 맞추는 것이 아닌 수요에 대응하는 완전 수요응답형 공공형 택시 도입이 필요
- 공공형 택시는 택시형 모델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산방법의 전산화가 필요
- 공공형 택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
- 공공형 택시 운영으로 인한 노선의 조정보다는 노선 운행 횟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공공형 택시 이용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용대상 선정이 필요
- 공공형 택시는 버스 대체 수단이므로 버스 운행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 12 멸종위기어류 분포와 하천 복원방안

## 개요

- 대전의 주요 하천에서 실시한 생태모니터링을 통해 갑천과 유등천에서 미호종개와 감돌고기 등 2종의 멸종위기어류 서식을 확인하였으나, 분포권과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미호종개와 감돌고기는 하천 지표종 및 우산종으로, 2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하천 복원 노력을 통해 이 종들 뿐 아니라 다른 생물의 서식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01 멸종위기어류의 분포 현황

- 대전시 자연환경조사와 생태계변화관찰조사, 깃대종 모니터링,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등을 통해 대전의 갑천과 유등천에서 미호종개와 감돌고기의 서식을 확인
- 갑천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미호종개 1종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분포권이 감소 추세
  - 2010년 이전에는 갑천 상류 수역인 유성구 방동과 세동 일대를 포함하여 금강 본류 구간에 이르기 까지 비교적 폭넓게 분포하였으나, 최근에는 월평동과 도안동 일대에서만 소수의 개체 확인
- 유등천에서는 멸종위기종인 감돌고기 1종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분포권이 단절
  - 유등천의 제1사정교와 수련교 사이의 일부 구간에 단절되어 분포

미호종개와 감돌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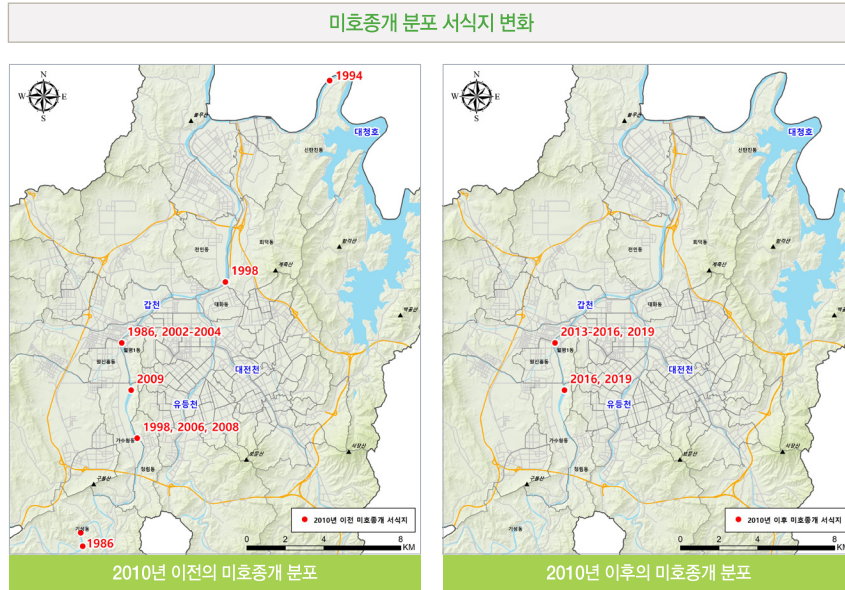
갑천의 미호종개



유등천의 감돌고기



# 12 멸종위기어류 분포와 하천 복원방안



## 02 멸종위기어류 보전 및 하천 복원 방안

- **갑천 미호종개의 경우 분포권 감소뿐만 아니라 개체수도 급감**
  - 개체군 크기가 적어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절멸 가능성이 높아 개체수 보강이 시급
  - 매년 소량의 개체군을 서식지 일대에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절멸 가능성을 막는 것이 중요
  - 또한, 보의 설치로 인해 물의 흐름이 느려지고 하상 공사 및 교각 등의 설치로 모래가 유실되며 펄이 덮고 있어 서식지 복원이 필요
- **유등천 감돌고기의 경우 분포권이 좁고 서식지는 단절**
  - 유등천 감돌고기의 경우에도 서식지 내에 지속적인 치어 방류를 통해 개체수 절멸을 사전에 방지
  - 이와 함께 깎지 산란장에 침입하여 탁란하는 생태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산란숙주인 깎지의 보존 및 인공증식 개체의 추가적 방류 필요
  - 감돌고기 서식지 일대의 하상정비사업을 가능한 실시하지 않고 현재 하상을 유지하되 단절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 여울부 형성 및 암반 조성 등의 서식지 복원 필요

## 03 시사점

- **갑천 미호종개와 유등천 감돌고기 개체수 보강**
  - 매년 500개체 정도의 치어를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절멸을 막고 자연 개체수 증가 유도
- **미호종개와 감돌고기의 지속적인 서식을 위한 하천 복원**
  - 미호종개: 보 제거, 0.5mm 내외의 모래하상 조성 및 유실 방지 노력
  - 감돌고기: 보 제거, 암반 및 호박돌 이상의 하상 형성, 상류부 부유물질 최소화
-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분포 및 개체 밀도 파악**
  -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계변화관찰조사, 깎대종 모니터링,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등의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2종의 분포와 개체 밀도의 변화 파악 및 보전방안 제시



대전세종인포그래픽스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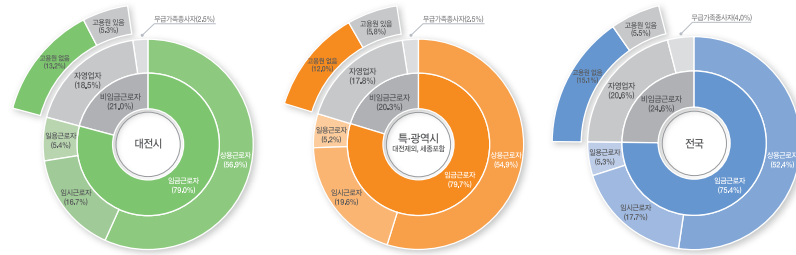
경제·과학

# 13 자영업자의 의료서비스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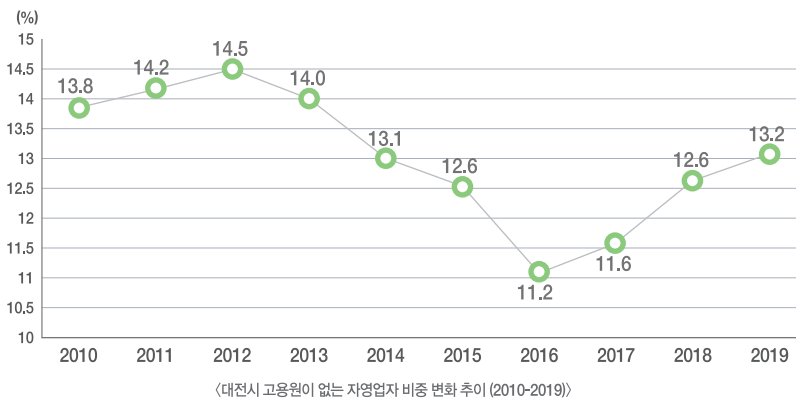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체(1~4인) 종사자, 임시직·일용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 01 자영업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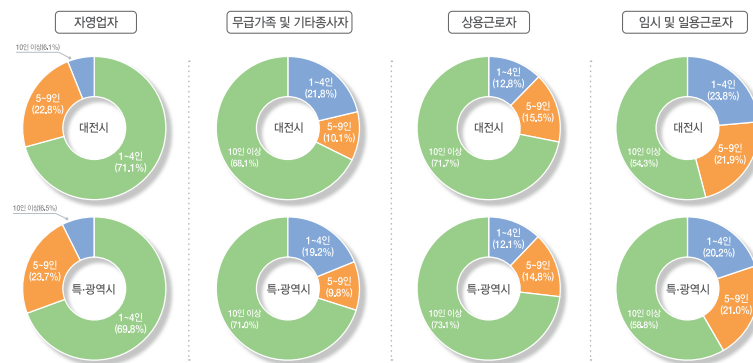
- 대전시는 다른 특·광역시 평균보다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높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은 2016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임
- 고용원을 두고 경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형편이 더욱 나빠지고 있기 때문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 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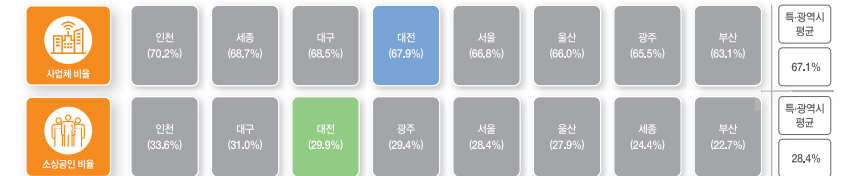


- 전국 및 특·광역시 대비 영세 자영업자, 무급가족·기타종사자,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음
- 1~4인 이하 소규모 자영업자,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이 특·광역시 및 전국 평균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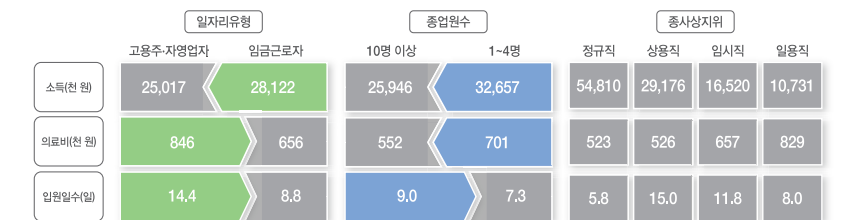


## 02 자영업자·저소득 근로자 의료비 부담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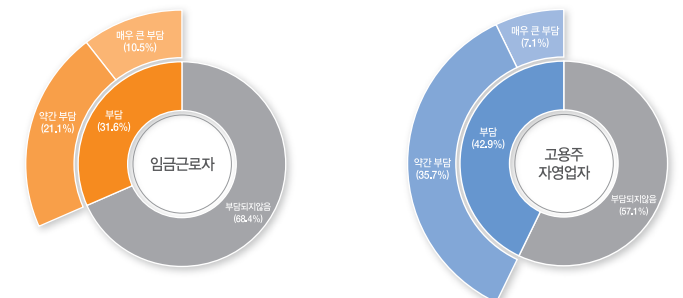
- 전체 사업체 중 자영업자가 속한 소상공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대전시의 자영업자,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의료부담이 높은 편임
-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는 임금근로자보다 개인별 소득수준은 낮고, 입원일수와 의료비는 많아 의료서비스 형편이 나쁜 상황
- 이는 1~4명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와 임시직·일용직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나 정규직 근로자보다 의료서비스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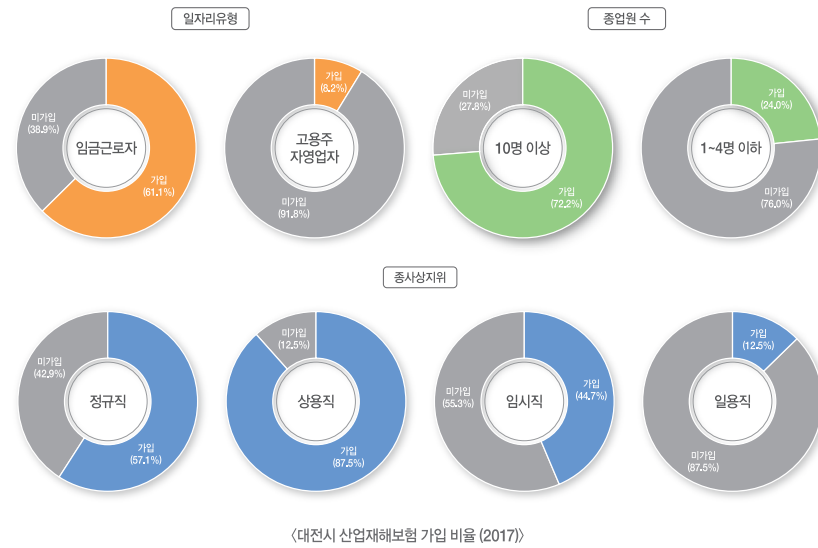
- 입원 의료비는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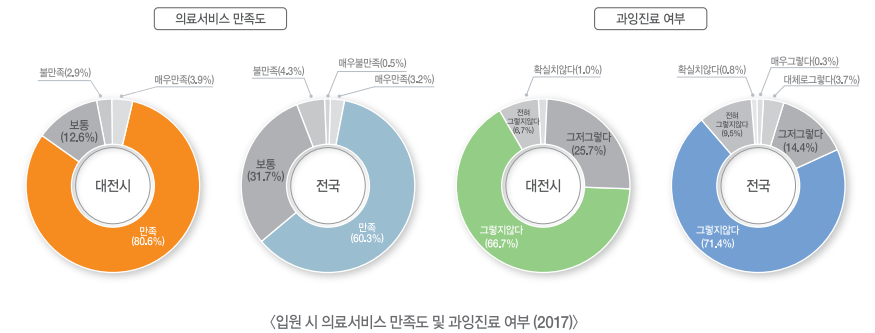
# 13 자영업자의 의료서비스 실태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체(1~4인) 종사자, 임시직·일용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 자영업자, 소규모사업체(1~4인) 종사자, 임시직·일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
  - 임금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61.1% 이상으로 높지만, 자영업자는 91.8%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또한 1~4인 소규모사업체 종사자, 임시직·일용직에서도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음
  - 이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소득 근로자의 업무상 상병보장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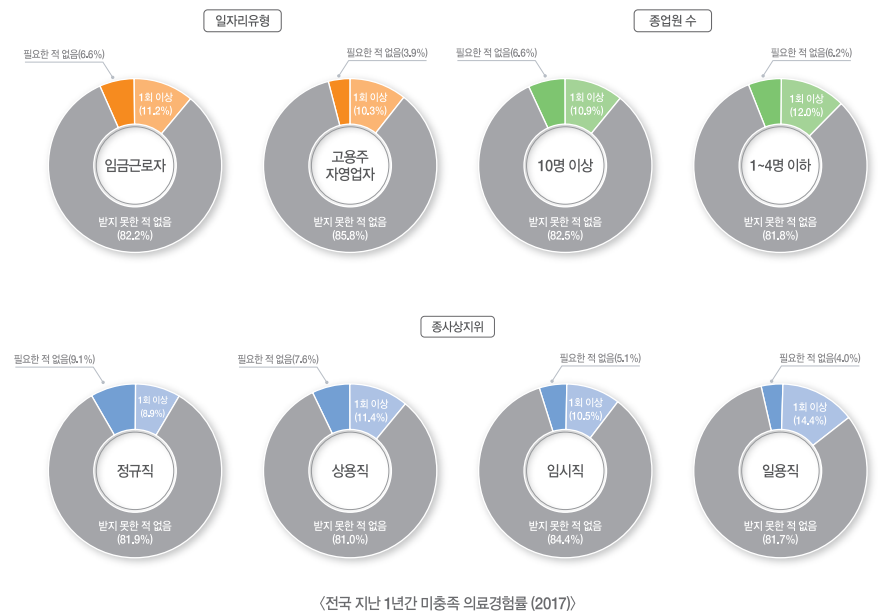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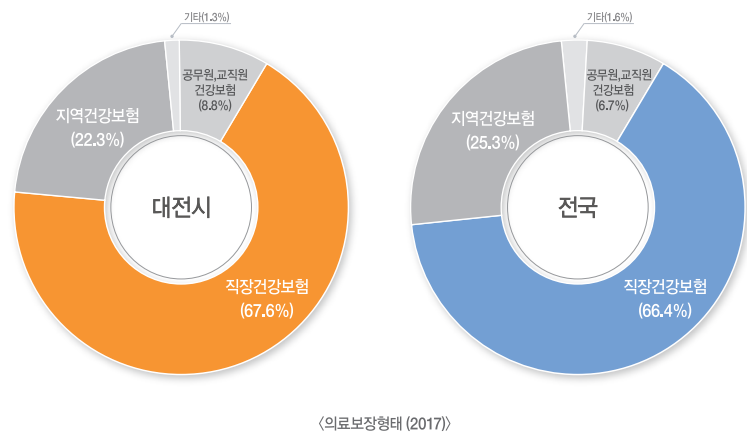


- 입원 시 의료서비스 만족도 매우 높음
  - 입원 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전국과 대전시 모두 높음
  - 특히 대전시는 매우 만족을 포함한 만족도가 84.5%로 매우 높음
- 대체로 입원 시 과잉진료 정도가 매우 낮음
  - 대전시의 경우 입원시 과잉진료를 받았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전국의 경우 4.0%로 매우 낮은 수준



# 03 의료 서비스 수준

- 의료보장형태는 대부분 직장건강보험
  - 대전시와 전국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각각 67.6%, 66.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역건강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전시는 전국보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14 '온통대전' 얼마나 통했을까?

## 개요

- 대전시 만 14세 이상 인구 31.7%에 해당하는 40.6만명이 온통대전에 가입
-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온통대전 사용량은 1,600만건이며, 4,010억원을 지출
- 가입자별 온통대전 사용량은 10대 가입자가 가장 적게, 60대 이상 가입자가 가장 많이 사용
- 자치구별 온통대전 사용량은 60.0% 이상이 서구와 유성구에서 사용되었고, 동구와 대덕구 사용량은 전체 20% 미만
- 가맹점 1개소당 온통대전이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대형유통업(하나로마트 등)이며, 1건당 지출금액이 가장 큰 업종은 가구업

## 01 온통대전, 누구에게 통했을까?

### 대전시 시민 중 31.7%는 이미 온통대전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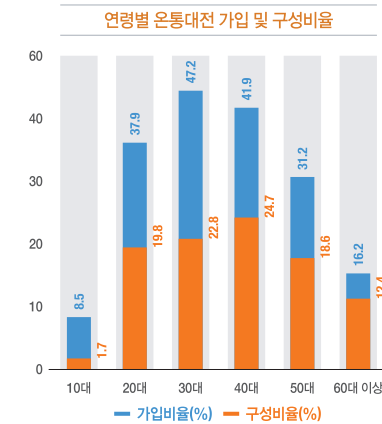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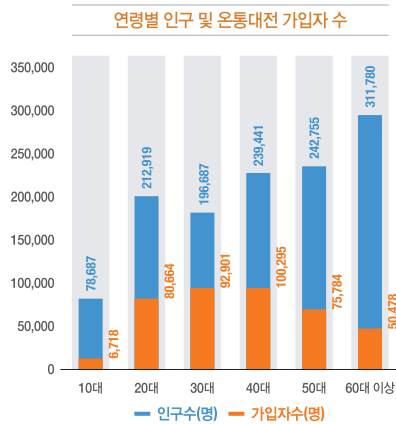
- 만 14세 이상 대전시 시민 128만명 중 40.6만명이 '온통대전에 가입

### 가입을 많이 한 40대, 가입 비율이 높은 30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 10대

- 40대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5%인 10만명, 10대는 1.7%인 6,7천명
- 30대 가입자는 2명 중 1명이 가입, 10대는 10명 중 1명이 가입

온통대전 가입자 현황				
연령대	인구수(명)	가입자수(명)	가입비율(%)	구성비율(%)
10대	78,687	6,718	8.5	1.7
20대	212,919	80,664	37.9	19.8
30대	196,687	92,901	47.2	22.8
40대	239,441	100,295	41.9	24.7
50대	242,755	75,784	31.2	18.6
60대 이상	311,780	50,478	16.2	12.4
총계	1,282,269	406,840	31.7	100

\*대전시 인구 현황 자료는 2020년 8월 주민등록인구현황을 사용함  
 \*연령대 인구 중 10대 인구수는 온통대전 발급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의 인구임  
 \*가입비율은 전체 인구수 대비 가입자수이며, 구성비율은 전체 가입자수 대비 가입자 비율임



## 02 온통대전, 얼마나 통했을까?

### 온통대전을 많이 사용한 노년층, 적게 사용한 청소년

- 평균적으로 60대 이상 가입자는 10대 가입자에 비해 온통대전을 3배 이상 사용
  - 60대 이상 가입자 월평균 온통대전 19회 사용, 47만원 지출
  - 10대 가입자 월평균 온통대전 5회 사용, 16만원 지출

### 온통대전 1건당 지출이 많은 10대, 적은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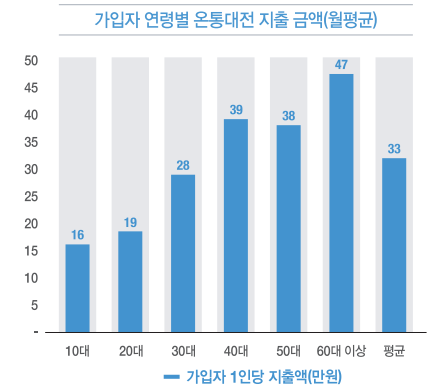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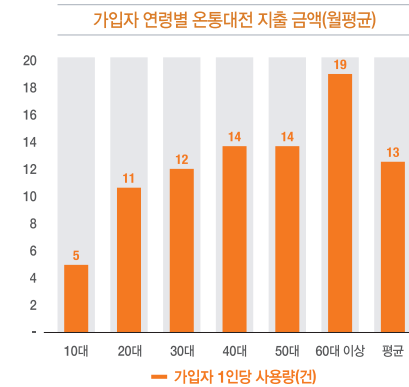
- 10대 가입자 1인은 20대에 비해 1건당 지출 금액이 1.8배 많음
  - 10대 가입자의 1건당 지출 금액 평균 3.1만원, 20대 1.7만원

### 온통대전 가입자 1인 평균 사용량보다 적게 쓴 청년층, 많이 쓴 중·장년, 노년층

- 가입자 1인의 사용량은 월평균 13회이며, 33만원을 지출함
  - 청년층 1인의 평균 사용량은 월평균 11회, 23만원 지출
  - 중·장년층 1인의 평균 사용량은 월평균 14회, 38만원 지출
  - 노년층 1인의 평균 사용량은 월평균 19회, 47만원 지출
  - 평균 대비 청년층은 23% 적게 사용, 중·장년층은 11%, 노년층은 44% 많이 사용

가입자 연령별 온통대전 사용 현황(월평균)			
연령대	1인당결제(건)	1인당지출(만원)	1건당지출(만원)
10대	5	16	3.1
20대	11	19	1.7
30대	12	28	2.3
40대	14	39	2.7
50대	14	38	2.6
60대 이상	19	47	2.4
평균	13	33	2.4

\*표 내용은 온통대전 소비유형 빅데이터 평균값임(2020년 6~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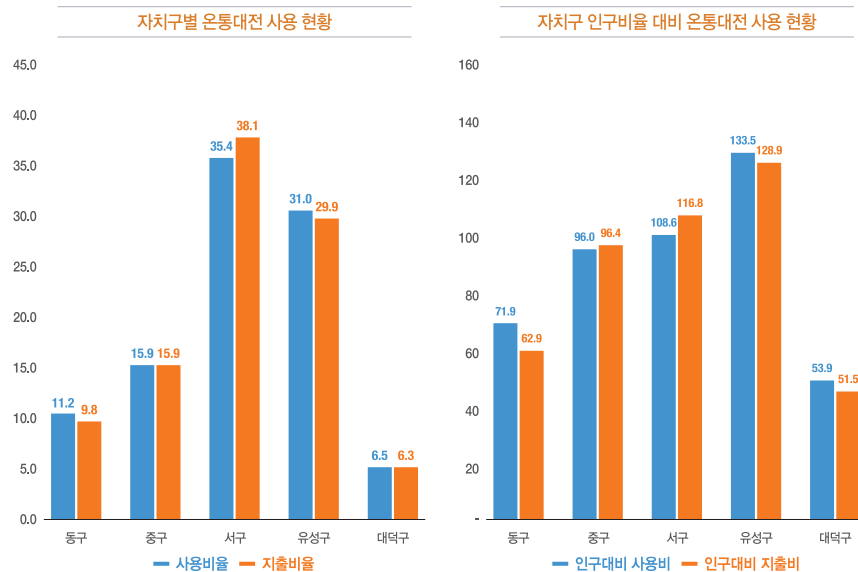
# 14 '온통대전' 얼마나 통했을까?

## 03 온통대전, 어디에서 통했을까?

- 인구비율 대비 온통대전 사용이 많은 유성구, 적은 대덕구
- 유성구는 인구비율 대비 온통대전 사용이 33.5%, 지출 금액이 28.9% 많음
- 대덕구는 인구비율 대비 온통대전 사용이 46.1%, 지출 금액이 48.5% 적음
- 온통대전이 대덕구에서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는 것은 '대덕e로움' 영향으로 추정

자치구별 인구대비 온통대전 사용 현황 (단위: %)					
	인구비	사용 비율	지출 비율	인구대비 사용비	인구대비 지출비
동구	15.5	11.2	9.8	71.9	62.9
중구	16.5	15.9	15.9	96.0	96.4
서구	32.6	35.4	38.1	108.6	116.8
유성구	23.2	31.0	29.9	133.5	128.9
대덕구	12.1	6.5	6.3	53.9	51.5

\*자치구별 인구 비율은 2020년 8월 주민등록인구현황 중 만 14세 이상 인구의 비율임  
\*인구대비 비율은 사용 비율/인구비 및 지출 비율/인구비 임



## 04 온통대전, 어떤 업종에 통했을까?

### 가맹점 1개소당 온통대전 결제 빈도가 많은 상위 5개 업종은?

- 대형유통, 학교, 소매, 주유, 음료식품업
- 대형유통업이 월평균 620건으로 가장 많으며, 학교(307건), 소매(305건), 주유(295건), 음료식품(77건) 순으로 나타남

온통대전 결제 빈도가 많은 상위 5개 업종(월평균)					
	대형유통	학교	소매	주유	음료식품
총결제건수	59,551	1,227	1,596,296	204,958	654,705
가맹점수	96	4	5,227	694	8,496
가맹점당 결제건수	620	307	305	295	77

\*표 내용은 온통대전 소비유형 빅데이터 평균값임(2020년 6~8월 기준)  
\*업종분류는 대전시에서 분석한 '온통대전 출시에 따른 소비유형 빅데이터 분석'의 업종분류표를 활용함  
\*대형유통업은 농협 하나로마트임

### 가맹점 1개소당 온통대전 지출 금액이 많은 상위 5개 업종은?

- 대형유통, 주유, 소매, 가구, 의료기관/제약업
- 대형유통업이 월평균 1,600만원, 주유(940만원), 소매(330만원), 가구(300만원), 의료기관/제약(290만원)

가맹점 1개소당 온통대전 지출 금액이 많은 상위 5개 업종(월평균) (단위: 백만원)					
	대형유통	주유	소매	가구	의료기관/제약
지출금액	1,537.6	6,517.5	17,426.7	2,555.1	21,553.6
가맹점수	96	694	5,227	843	7,332
가맹점당 지출금액	16.0	9.4	3.3	3.0	2.9

\*표 내용은 온통대전 소비유형 빅데이터 평균값임(2020년 6~8월 기준)  
\*업종분류는 대전시에서 분석한 '온통대전 출시에 따른 소비유형 빅데이터 분석'의 업종분류표를 활용함  
\*대형유통업은 농협 하나로마트임

### 온통대전 사용 1건당 결제 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종은?

- 가구, 가례서비스, 통신판매, 학원, 학습자재업
- 가구업이 1건당 38만원, 가례서비스(34만원), 통신판매(26만원), 학원(25만원), 학습자재(22만원)

온통대전 사용 1건당 결제 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종(월평균) (단위: 십만원)					
	가구	가례서비스	통신판매	학원	학습자재
지출금액	25,550.8	2,060.8	2,200.2	122,405.8	698.1
결제건수	6,702	601	855	48,567	316
1건당 결제금액	3.8	3.4	2.6	2.5	2.2

\*표 내용은 온통대전 소비유형 빅데이터 평균값임(2020년 6~8월 기준)  
\*업종분류는 대전시에서 분석한 '온통대전 출시에 따른 소비유형 빅데이터 분석'의 업종분류표를 활용함

호	발행일	제목/구성/출처	분류
2020-4(통권26호)	2020.5.20.	<b>대전을 찾은 관광객의 방문 특성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율</li> <li>외국인 관광객의 대전 방문 특성</li> <li>내국인 관광객의 대전 방문율</li> <li>내국인 관광객의 대전 방문 특성</li> </ul> - 윤설민(2020), 대전시-대전세종연구원(2020), 「2019년 대전관광 실태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사회·문화
2020-5(통권27호)	2020.6.16.	<b>여성의 근로빈곤(working poor) 현황과 정책방안</b> - 대전시 20대 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대상 개요</li> <li>20대 여성 노동의 특성</li> <li>빈곤의 다층성</li> <li>시사점</li> </ul> - 류유선(2019), 「대전지역 청년여성 1인가구 근로빈곤(working poor) 실태에 관한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사회·문화
2020-6(통권28호)	2020.7.20.	<b>대전시와 세종시의 인구이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전시의 지역 간 이동</li> <li>세종시의 지역 간 이동</li> <li>대전시의 지역 내 이동</li> <li>세종시의 지역 내 이동</li> </ul> - 통계청(2020), 「2019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사회·문화
2020-7(통권29호)	2020.8.14.	<b>치매노인 현황과 시사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매노인과 돌봄서비스</li> <li>치매노인 현황</li> <li>치매노인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li> <li>노인장기요양 급여별 이용 현황</li> <li>치매노인과 돌봄서비스 현황 시사점</li> </ul> - 양성욱(2020), 「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사회·문화
2020-9(통권31호)	2020.10.16.	<b>대전지역 예술인의 실태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 활동</li> <li>경제 실태</li> <li>예술활동 분야별 차이</li> <li>불공정/부당행위 실태</li> <li>불공정/부당행위 인식</li> <li>시사점</li> </ul> - 한상현(2020), 「2019 대전 예술인 복지 정책」, 대전세종연구원.	사회·문화
2020-10(통권32호)	2020.10.30.	<b>코로나19 확진자 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현황</li> <li>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li> <li>연령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li> </ul> - 대전광역시(2020),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사회·문화
2020-13(통권35호)	2020.12.28.	<b>초등돌봄 실태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학생 인원 및 추이</li> <li>초등돌봄 관련 인구·사회 경제적 특성</li> <li>초등돌봄 기관 이용 현황</li> <li>초등돌봄 서비스 수요</li> <li>코로나19 이후 돌봄 수요</li> <li>시사점</li> </ul> - 양성욱 외(2020),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태 및 수요조사」, 대전세종연구원.	사회·문화
2020-1(통권23호)	2020.2.25.	<b>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급증 - 차량 증차 및 서비스 개선 필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교통수단은 몇 명이 이용하고 있나?</li> <li>특별교통수단은 몇 대가 운행되고 있나?</li> <li>특별교통수단은 어느 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있나?</li> <li>특별교통수단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나?</li> <li>시사점</li> </ul> - 이범규(2019),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도시·환경
2020-2(통권24호)	2020.3.30.	<b>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별 노후건축물</li> <li>세종시 읍면지역 노후건축물</li> <li>시사점</li> </ul> - 지남석(2019), 「세종시 노후건축물 현황 및 안전관리방안」, 대전세종연구원.	도시·환경

호	발행일	제목/구성/출처	분류
2020-3(통권25호)	2020.4.16.	<b>빈집분포 특성 및 시사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집실태 조사 및 판정기준</li> <li>빈집수</li> <li>빈집 분포 현황</li> <li>주택유형별 빈집</li> <li>건축구조별 빈집</li> <li>빈집 정비 및 활용 가능 방식</li> </ul> - 정경석(2019), 「대전시 빈집정비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도시·환경
2020-11(통권33호)	2020.11.13.	<b>대중교통 소외지역, 공공형 택시는 어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중교통 소외지역 분석</li> <li>공공형 택시 도입방안</li> <li>시사점</li> </ul> - 이정범(2020), 「대전시 공공형 택시 도입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도시·환경
2020-14(통권36호)	2020.12.31.	<b>멸종위기어류 분포와 하천 복원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멸종위기어류의 분포 현황</li> <li>멸종위기어류 보전 및 하천 복원 방안</li> <li>시사점</li> </ul> - 이은재(2016), 「대전시 서식 미호종개 분포 및 복원 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대전시(2016), 「깃대종 모니터링 및 보전방안 연구용역」, - 대전시(2020),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연구용역」,	도시·환경
2020-8(통권30호)	2020.9.4.	<b>자영업자의 의료서비스 실태</b> -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체(1~4인) 종사자, 임시직·일용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영업자 현황</li> <li>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의료비 부담률 현황</li> <li>의료 서비스 수준</li> </ul>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2017), 「한국의료패널조사」 통계청(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과학
2020-12(통권34호)	2020.12.8.	<b>'온통대전' 얼마나 통했을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통대전, 누구에게 통했을까?</li> <li>온통대전, 얼마나 통했을까?</li> <li>온통대전, 어디에서 통했을까?</li> <li>온통대전, 어떤 업종에 통했을까?</li> </ul> - 대전광역시(2020), 「온통대전 소비유형 빅데이터」,	경제·과학

## 만든 사람들

정경석(도시정보센터 센터장)

## 편집위원

황혜란(미래전략실 실장)

지남석(세종연구실 실장)

문충민(미래전략실 책임연구위원)

염인섭(미래전략실 책임연구위원)

이정범(미래전략실 책임연구위원)

한상현(미래전략실 책임연구위원)

양승희(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

윤설민(미래전략실 연구위원)

이윤희(세종연구실 연구위원)

노상진(도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류형원(도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발행인 정재근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디자인 (주)시우컴퍼니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T. 042.530.3494 F. 042.530.3528  
 www.dsi.re.kr